백두산

37호 - 주체91(2002)년 5월 21일 (화) 백두산 편집부

김정일장군님은
통일혁명의 영도자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김정일최고사령관 조선인민군 제858비행군부대를 시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858비행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을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공군사령관 오금철상장을 비롯한 장령들과 군부대지휘관들이 영접하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부대의 임무수행정형을 료해하시고 군부대장으로부터 정황보고를 받으신 다음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 보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이 공군부대는 지난 반세기 참으로 자랑찬 승리의 한길을 걸어 왔다고 하시면서 공군무력건설에 쌓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혁명업적은 주체의 공군사와 더불어 찬연히 빛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군부대장의 안내를 받으시며 비행훈련실들을 돌아 보시면서 비행사들의 지상훈련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모든 지상비행련습들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는 훈련설비들을 자체로 훌륭히 갖추어 놓고 비행사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비행훈련을 생활화하여 주체적인 공군전법에 정통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부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이어 교양실, 침실, 식당, 취사장, 세목장, 일일창고를 비롯한 문화교양 및 후방시설들을 돌아 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사랑으로 따뜻이 보살펴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부대의 장병들이 열렬한 조국애를 안고 자기 초소를 꾸리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린 결과 부대관리에서 만사람의 탄복을 자아내는 놀라운 전변을 이룩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잘 사는 부대, 생활할줄 아는 이 부대야말로 사상정신상태에 있어서나 투쟁기풍, 생활기풍에서 우리 혁명군대의 전형이라고 당당히 말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전군이 이들의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을 힘 있게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군부대직속중대 군인들의 예술소품공연도 보아 주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군부대에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그들과 함께 뜻 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인민군 리명수, 현철해, 박재경대장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국태, 김기남비서들과 리용철, 장성택, 주규창제1부부장들이 동행하였다.

2002/05/19 조선중앙통신

김정일총비서, 김일성종합대학과 의학과학원 위생연구소에 대동강동물표본들을 보내시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과 의학과학원 위생연구소에 대동강동물표본들과 사진해설집 ≪대동강동물≫을 보내시였다.

선교구역인민보안서 일군들은 지난 3년간 대동강과 그 류역에 대한 조사를 구체적으로 진행하여 골뱅이 22종, 게 11종, 새우 8종, 가재 1종, 자라 1종을 채집분류하여 계렬표본들을 완성하였으며 그에 대한 사진해설집 ≪대동강동물≫을 훌륭히 만들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인민보안일군들이 조선에서 처음으로 채집분류하여 만든 대동강동물표본들과 사진해설집 ≪대동강동물≫을 **김일성**종합대학과 의학과학원 위생연구소에 보내여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 리용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보내신 대동강동물표본들과 사진해설집 ≪대동강동물≫을 전달하는 모임들이 **김일성**종합대학과 의학과학원 위생연구소에서 각각 진행되였다.

2002/05/19 조선중앙통신

김정일총비서, 대홍단군 삼지연군에 방송선전차 보내시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대홍단군과 삼지연군에 방송선전차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군들을 여러차례 찾으시여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더 잘 꾸리고 보존관리하며 감자농사를 잘 지을데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뜨거운 사랑을 거듭 안겨 주시였으며 이번에는 방송선전차를 보내주시는 은정을 베풀어 주시였다.

2002/05/19 조선중앙통신

2 종합
• 해내외청년학생결의대회, 서울평양도꾜에서 열려
• 남조선 전지역에서 5.18행사
• 남북직항로 북측 실사단 양양공항 시찰
• 미 한인 대학생들 통일기원이북영화상영
• 조선통일지지 국제적 서명운동 기네에서 진행
• 광주 금남로에서 범민련 결의대회

4 노작
• 조선노동당 제6차대회(7)

6 세기와 더불어
• 8장 5절 마촌작전(4)

8 칭송
• 예가 진정 ≪성지≫ 아닌가
• 걸그림 ≪배냉-조선 협조≫와 ≪안정된 사회생활≫

9 노동신문 정론
• 공동사설 관철에서 당조직들의 전투적 역할을 높이자
•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강성대국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자

11 한국민족민주전선
• 종군위안부 진상, 절대 가리울 수 없다
• 노동운동 탄압은 중지돼야 한다

13 투쟁보도
• 5.18시민법정, ≪미국은 학살공범≫
• ≪당시 주한미군 폭동진압훈련≫ 증언
• ≪월드컵 기간에 GM부당성 알리겠다≫
• 여성 노조원 한강대교 고공시위

15 운동강좌
• 전위당의 견해를 중심으로 본 지역통일전선에 대한 견해(2)

해내외 청년학생결의대회, 서울 평양 도꾜에서 열려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로 빛내이기 위한 해내외 청년학생결의대회가 평양, 서울, 도꾜에서 각각 진행되였다.

대회들에서는 범청학련 북측본부, 남측본부, 해외본부들에서 대회참가자들에게 보내여 온 련대사들이 랑독된 다음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6.15공동선언발표 2돐을 맞으며 진행되는 통일행사들은 미제에 의하여 조선반도에 조성된 핵전쟁위험을 막고 우리 민족끼리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온 겨레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금 내외에 과시하는 계기로 될것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해내외 청년학생들이 한결같이 떨쳐나 반미, 반전, 반핵의 구호밑에 미국의 침략전쟁계획을 저지파탄시키고 침략무리들을 조국강토에서 몰아 내는데 모든 지혜와 힘을 다 바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연설자들은 해내외의 모든 청년학생들이 공동선언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6.15통일행사들을 기어이 성사시키며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함으로써 시대와 민족앞에 지닌 력사적사명과 임무를 다해 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들에서는 공동결의문이 채택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통일구호와 통일노래들, ≪범청학련가≫를 힘차게 합창하며 대회장을 통일열기로 끓어 번지게 하였으며 조국통일주제의 강연과 반미투쟁을 수록한 록화물시청 등 다채로운 사업에도 참가하였다.

2002/05/19 조선중앙통신

5.18관련행사 남조선 전 지역에서 진행

보도들에 의하면 18일 항쟁의 도시 광주와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 전 지역에서 영웅적광주인민봉기 22돐에 즈음한 행사들이 진행되였다.

5.18민중항쟁 민주기사동지회와 ≪전국민주택시로조련맹≫ 광주, 전남지역본부는 이날 광주시내 전역에서 5월항쟁때 운수로동자들의 투쟁정신을 되새기는 경적시위를 벌렸다.

또한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는 ≪5.18민중항쟁 22주년기념 시, 도민 대동한마당≫행사가 그리고 그 일대에서는 5월녀성제, 5월거리음악제, 5월문학제 등이 열렸다.

이날 ≪민주로총≫ 서울지역본부의 주최로 종묘공원에서는 ≪5.18혁명정신계승과 5월총력투쟁승리 결의대회≫가 진행되였다.

이에 앞서 ≪5.18민중항쟁 22주년 서울행사위원회≫가 종묘공원에서 기념행사를 가지였다.

5.18민중항쟁 22주년기념 전야제가 ≪반전, 평화, 자유와 통일로≫라는 주제로 17일 저녁 5.18관련단체와 시민, 학생 등 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남도청앞 민주광장에서 진행되였다.

≪련합통신≫은 ≪5.18혁명정신계승과 5월총력투쟁승리 결의대회≫가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 대구, 광주, 제주 등 전 지역의 20개 도시에서 2만여명 로동자들의 참가하에 일제히 진행될것이라고 전하였다.

2002/05/19 조선중앙통신

남북직항로 이북측 실사단 양양공항 시찰

경수로 건설 인력과 물자 수송을 위한 양양-이북 선덕공항 직항로 개설 추진과 관련, 19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이북측 실사단이 20일 양양공항을 둘러봤다.

입국과 동시에 국내선 항공편으로 양양지역으로 이동, 속초에서 1박한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관계자들과 20일 오전 양양공항에 도착한 이북측 실사단 10명은 오전 10시30분께부터 1시간여 동안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 관계자의 안내로 국제선 출입국장을 둘러보고,오후엔 공항외곽 시설인 활주로와 계류장을 돌아봤다.

이들의 양양공항 방문은 외부인의 접근이 통제된 가운데 이뤄졌으며 시찰에 나선 이들은 시설을 둘러보며 직항로 개설시 자신들이 운항할 항공기 기종에 양양공항의 시설과 장비가 맞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했으며 시설과 장비에 대한 궁금증을 공항관계자에게 묻기만 했을 뿐 이에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찰단은 또 언론의 취재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양양공항에 도착한뒤 대기중인 취재진을 보자 한때 버스에서 내리기를 거부, 안내에 나선 관계자들이 취재진에게 현장에서 5m이상 떨어져 줄 것을 요청하며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이북측 실사단은 양양공항 시찰을 마친뒤 속초항 항만시설을 둘러보기도 했다.

당초 일정에 없던 이들의 속초항 방문은 현재 대아고속해운의 한겨레호 편으로 주1회 속초항을 통해 경수로 인력이 수송되는 것과 관련, 수송선이 출입항 하는 항만을 한번 보고싶다는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한편 이들의 양양공항 방문과 관련 일부에서는 오는 7월초 직항로 개설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업무협조가 잘 될 경우 오는 6월 중순께 시험운항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속초에서 하루를 더 묵은 후 21일 오전 다음 방문지인 울진원전으로 떠날 예정이다.

이종건 기자
2002/05/20 연합뉴스

美한인대학생들, 통일기원 北영화 상영

미국 UC버클리, 샌프란시스코 주립대, 산호세 주립대 등에 재학 중인 한인 1.5세와 2세들이 오는 6월 21일과 22일 버클리대 드윈넬홀에서 6·15 남북정상회담 2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정착을 기원하는 이북영화를 상영한다.

이번 영화 상영을 위해 구성된 이북영화상영위원회(회장 이종석)는 20일 ≪남북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의미를 지닌 영화 상영은 미국에 있는 한인 2세의 한반도 분단상황 이해를 돕고 1세와 2세가 한자리에 모여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모으기 위해 개최한다≫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밝혔다.

이 회장은 ≪영화 상영은 뉴욕·뉴저지의 한인 2세 학생과 전문인들로 구성된 대북교류단체 ≪노둣돌≫(공동대표 서승혜·박혜정)이 이북을 방문해 공식절차를 밟았고 미국 내 상영 허가를 받아 진행됐으며 지난 4월 뉴욕·보스턴 상영에 이어 캘리포니아에서 상영된다≫며 ≪≪살아있는 영혼들≫ ≪도라지꽃≫ ≪국가와 운명≫ ≪홍길동≫ ≪평양일기≫ 등이 상영된 후 방북했던 한인 인사들을 초청, 공개토론회도 갖는다≫고 말했다.

왕길환 기자
2002/05/20 연합뉴스

조선통일지지 국제적서명운동 기네에서 진행

6.15북남공동선언을 지지하며 남조선에서 미군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요구하는 국제적서명운동이 4월 5일부터 5월 8일까지의 기간에 기네에서 진행되였다.

기네군 륙군참모장, 해군참모장, 까마엔병영사령관, 알파 야야 디알로병영사령관, 대통령부 호위대 대장, 기네헌병대 참모부 총서기가 연 6,600여명의 장병들을 대표하여 서명문에 각각 수표하였다.

또한 기네조선친선협회 부위원장인 경제사회리사회 부위원장, 대통령부 외무 및 협조성일군들, 라지오방송 책임주필, 텔레비죤방송 책임주필도 300여명의 인사들과 기자들을 대표하여 서명문에 각각 수표하였다.

2002/05/19 조선중앙통신

광주 금남로에서 범민련 결의대회

≪오늘의 5월 광주정신 계승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으로≫

광주민주화운동 22주년을 맞아 19일 오후 광주 금남로에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주최로 ≪범민련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6.15 민족통일대축전 성사 범민련 결의대회≫가 노동자 학생 등 각계각층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종린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암울했던 22년전 광주민중들의 항쟁은 자주 민주 통일의 불씨가 되었으며 광주학살의 원흉인 미국과 이에 아부, 굴종하는 사대주의자들에 의해 오늘 우리 민족 앞에는 엄중한 정세가 도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린 의장은 ≪오늘의 5월 광주정신을 계승하여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거족적인 반미자주통일투쟁으로 조국통일의 문을 열자≫고 호소하였다.

첫 번째 연대사에 나온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는 22년전 계엄군에 죄없이 잡혀 무수한 고문속에 죽음을 생각했던 과거를 회고하며, ≪사대매국노가 판을 치고 우리 민족과 민중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은 민족의 분단으로 인해 민족의 힘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 힘없는 민족, 자주권 없는 현실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며 역설했다.

한상렬 상임대표는 ≪민중생존권과 민족자주를 실현할 통일운동에 힘차게 나서자≫면서 ≪오직 민족의 단합을 위해 사상, 이념, 정견의 차이를 떠나 통일운동을 가장 열성적으로 해온 범민련, 한총련이 이적단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당국이 금번 민족공동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범민련과 한총련을 선별배제하고, 탄압하는 것에 대해 강도 높게 규탄했다.

두번째 연대사로 나온 권오헌 ≪한총련 합법화 범사회인 대책위≫ 대표 역시 통일은 남과 북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는 것인데, ≪남, 북, 해외 동포가 7.4 남북공동성명에 의해 만들어진 우리 민족의 통일원칙인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따라 통일을 이루자≫고 호소했다.

또한 권오헌 대표는 범민련과 통일운동의 선봉장으로 가장 헌신적으로 싸워온 한총련 학생들을, 정부가 국가보안법이라는 반통일법을 그대로 유지한 채 탄압하는 것을 보면 진정 정부당국이 통일을 위한 마음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범민련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했다.

이어 정치연설에 나온 부산민주청년회 박장홍 회장은 한반도를 위협하는 미국의 전쟁책동을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민족공동의 행사인 6.15 민족통일대축전이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며 우려했다.

박장홍 회장은 ≪미국과 반통일 수구세력이 이북의 인권, 체제, 탈북자 문제들과 금강산 댐 위험 등의 반북이데올로기를 통해 민족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전국 곳곳의 청년들이 일어나 반드시 이러한 내외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분쇄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범민련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6.15 민족공동행사를 거족적으로 성사시켜내자≫고 호소했다.

그리고 연대사와 정치연설 중간 중간에 노래패 ≪천리마≫와 ≪희망새≫의 힘있는 노래가 있었고, 대회에 참가한 많은 청년, 학생들이 노래에 맞춰 율동을 하며, 대회장 열기를 한층 북돋웠다.

결의문은 10기 한총련 의장으로 선출된 김형주(전남대 총학생회장) 의장이 낭독하였으며, 대회에 참가한 각계각층 대표가 함께 만세삼창을 하는 것으로 모든 대회일정을 마무리하였다.

대회는 전국에서 각계각층 참가자들이 망월동을 참배하고 옴으로 인해 30분 정도 늦게 시작되었으며, 본대회에 앞서 열린 식전문예공연에는 광주지역문예운동연합 노동자 율동패 ≪화살≫의 문예공연으로 시작해 노래패 ≪우리나라≫의 밝고 힘찬 통일노래와 민족춤패 ≪춤≫의 힘있는 북춤으로 대회장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전기룡 통신원
(대전충남통일연대 사무처장)
2002/05/20 통일뉴스

6.15 민족통일대축전 성사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여년 전 나라의 자주와 민주, 통일을 위해 분연히 떨쳐나섰던 광주 시민들의 뜨거운 혼과 의지는 우리 겨레가 수천년 역사속에서 계승, 발전시켜온 민족자주정신의 정수이다.

우리는 오늘, 광주시민들의 투쟁정신을 계승하여 외세의 전쟁위협과 민족대결정책에 맞선 화해와 단합, 통일에 대한 실천의 마음을 다지고 있다.

지난 해 우리 겨레는 서로 힘을 합쳐 분단의 장벽을 넘어 각계각층이 서로 손잡고 단합하면서 통일을 위한 하나의 목표로 나아갔으며, 광범한 동포들이 조국통일을 위한 실천에 기꺼이 땀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과거 분단시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 역사적 전환은 6.15 공동선언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며, 민족공동의 자랑스러운 승리이다.

올해 6.15 공동선언을 새로운 높이에서 이행하려는 우리 겨레 앞에는 많은 난관이 조성되어 있다.

수십년간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해온 미국이 오늘도 전쟁의 서슬퍼런 위협을 들이대며 6.15 공동선언의 이행을 가로막아 나서고 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반통일언론들은 상전 미국의 입맛대로 민족대결과 반북모략에 열을 올리고, 한나라당을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은 임의의 시간에 전쟁을 벌이려는 미국의 행각에 서슴없이 동의를 표하고 있다.

오늘 우리 민족 앞에 나선 엄중한 상황은 모든 동포들에게 실천의 길로 나설 것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이룩하자면서 남이 강요하는 전쟁으로 민족공멸의 길로 접어들 수는 없다.

우리는 외세의 그 어떤 간섭과 강요에도 흔들리지 않고 6.15 공동선언이 꾸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6.15 공동선언 이행, 남북의 단합과 통일을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확정지어야 한다.

6.15 민족통일대축전은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해외 각계의 의지를 과시하는 장이며, 미국의 민족분열책동과 전쟁위협에 대한 분기이다.

범민련 전체 성원들은 남북해외가 함께 건설한 3자연대 조직의 성원으로써 올해 민족통일대축전을 비롯한 남북 공동행사들이 성대히 성사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다할 것이다.

민족구성원이라면 그 누구나 통일문제에서 제 역할을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또한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이다.

6.15 시대에도 여전히 북을 ≪적≫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며 민간통일단체들을 ≪통제≫하고 ≪구속≫하려는 정부당국의 행각은 규탄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특히 범민련, 한총련을 이적시하면서 그동안 범민련이 남북 공동행사의 과정에서 응당히 수행해온 역할을 걸고들며, 남북사이의 연대연합에서 배제하려는 행각에 대해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이는 조국통일을 위한 범민련의 활동에 대한 용납못할 간섭이며, 참을 수 없는 모욕이다.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발표 2돌을 맞아 남북해외 각계각층이 함께 추진하는 6.15 민족통일대축전은 조국을 사랑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단체,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히 성사되어야 한다.

범민련 전체 성원들은 올해 남과 북의 민간 단체들이 합의한 대로 6.15 민족통일대축전에 응당한 자격으로 참가할 것이며, 이 안에서 남, 북, 해외에서 참가한 각계의 성원들과 함께 조국통일을 향한 지혜와 힘을 모아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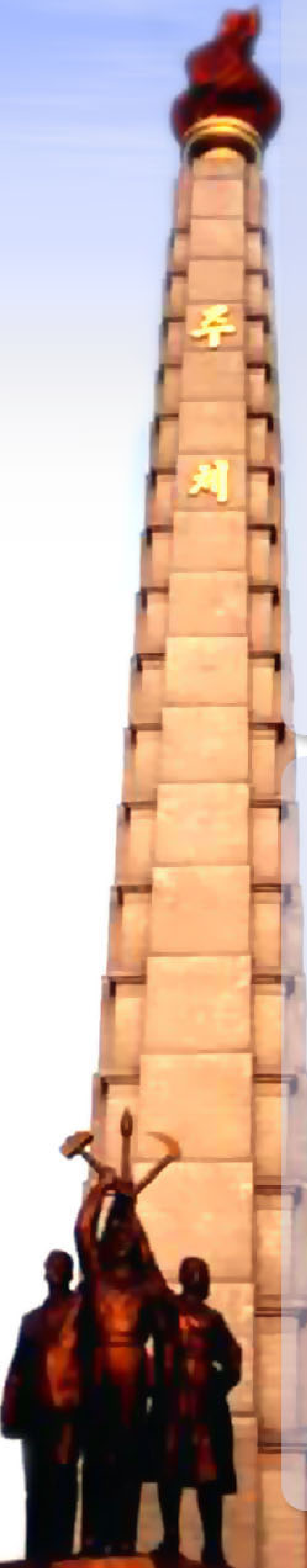
6.15 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치켜든 우리 민족의 앞에 무한한 영광과 승리 있으라!

조국통일 만세!

우리민족끼리단합과통일을촉진하는해
5월 19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7)

당중앙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 주체69(1980)년 10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2)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세력권 쟁탈을 위한 렬강들 사이의 대립과 충돌이 날로 격화되여 가고 있습니다. 력사는 렬강들이 세력권을 넓히기 위한 싸움을 벌릴 때마다 그 과정에 작은 나라들이 리익을 침해당하고 희생물로 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의 리해 관계가 복잡하게 엉키고 열강들 사이의 군사적 대결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때에 우리 민족은 또다시 외세의 희생물로 식민지 노예로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 렬강의 리해 관계에 따라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롱락당하고 우리 겨레가 망국노예 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갈라진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여야 합니다.

분렬은 예속과 망국의 길이며 오직 통일만이 독립과 번영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통일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으며 조국을 통일하는 것보다 더 절박한 과업은 없습니다.

남북조선인민들과 전체 조선민족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 것입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에서 군사파쑈통치를 청산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남조선에서 오늘과 같이 민주주의가 여지없이 말살되고 가혹한 군사파쑈통치가 실시되는 조건에서는 민족적 화해와 단결을 이룩할 수 없으며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없습니다. 남조선에서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파쑈적인 악법들을 폐지하고 모든 폭압통치 기구들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와 함께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을 합법화하고 정당, 사회단체, 개별적 인사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체포투옥된 민주인사들과 애국적 인민들을 석방하고 그들에게 가해진 모든 형벌을 무효로 하여야 합니다.

남조선에서 ≪유신체제≫를 청산한 기초우에서 군사 파쑈 ≪정권≫을 광범한 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을 옹호하며 대변하는 민주주주의적인 정권으로 교체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북과 남의 방대한 무장력이 서로 대치하여 있으며 남조선에서는 수만 명의 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 군사파쑈분자들의 끊임없는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의 정세는 언제나 긴장성을 띠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위험이 항시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정세가 긴장하고 첨예한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인민 뿐 아니라 우리의 주변나라 인민들과 전 세계 인민들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전쟁을 바라지 않으며 어떻게 해서든지 동족상쟁을 피하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 것을 념원하고 있습니다.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전쟁위험을 가시는 것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북과 남이 서로 총을 겨누고 맞서 있으며 동족상쟁의 위험이 떠도는 가운데서는 북과 남 사이의 그 어떤 접촉과 대화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없으며 민족의 진정한 단합과 통일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과 미국 사이의 대화를 실현하고 평화 협정을 체결할 데 대하여 미국에 이미 여러 차례 제의하였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제의는 조건의 자주적 평화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가장 정당한 발기이며 이것은 미국 인민들의 리익과 념원에도 전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정당한 제의를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남조선에 자기의 군대를 계속 주둔시키고 평화에 엄중한 위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협상할 것을 미국에 다시 한번 제의합니다.

미국 당국자들이 우리의 이 제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은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문제에 대한 그들의 명백한 대답으로 될 것입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이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이며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우리의 정당한 제의를 받아들이며 남조선에서 자기의 군대를 하루빨리 철거함으로써 미국 인민을 포함한 세계 인민들의 일치한 념원과 의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미국의 ≪두 개 조선≫조작책동을 저지시키며 조선의 내정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끝장내야 합니다.

미국의 ≪두 개 조선≫조작책동은 오늘 우리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서 기본 장애로 되고 있습니다. ≪두 개 조선≫을 조작하여 단일 민족인 우리 민족을 영구히 둘로 갈라 놓으려는 미국의 분렬정책은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시대의 흐름에 어긋나는 것이며 이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또한 남조선을 자기의 식민지로 만들고 남조선 군사파쑈분자들을 적극 비호하고 있는 미국의 내정간섭정책은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과 조선의 통일을 저애하고 있으며 그것은 조선인민과 미국인민들 사이의 관계 발전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분렬주의적인 ≪두 개 조선≫정책을 더는 추구하지 말아야 하며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지 말고 통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미국은 남조선의 군사파쑈분자들을 비호하지 말아야 하며 조선의 내정에 대한 온갖 간섭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라의 통일이 반드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에 기초하여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조선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며 북과 남 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은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우리 민족 자체의 힘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며 북과 남 사이의 무력행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접촉과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실현되여야 하며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한민족으로서 대단결을 이룩하는 원칙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7.4 남북 공동 성명에서 북과 남이 공동으로 천명한 숭고한 리념과 원칙에 기초하여 그리고 나라의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있는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가장 빠르고 확신성 있는 조국통일 방도를 찾아야 하며 적극적인 노력으로써 그것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는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련합하여 하나의 련방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해방 후 오늘까지 북과 남에는 오랜 기간 서로 다른 제도가 존재하여 왔으며 거기에서는 서로 다른 사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면 어느 한 쪽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북과 남이 제각기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화하거나, 그것을 상대방에 강요하려 한다면 불가피적으로 대결과 충돌을 가져오게 되며 그렇게 되면 도리여 분렬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전민족이 한결같이 조국통일을 지상의 과제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통일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 서로 다른 사회제도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결코 남조선에 강요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복종시킬 것입니다.

우리 당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할 것을 주장합니다.

련방 형식의 통일국가에서는 북과 남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 동포 대

우리 당은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는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련합하여 하나의 련방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표들로 최고민족련방회의를 구상하고 거기에서 련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북과 남의 지역 정부들을 지도하며 련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최고민족련방회의와 그 상임기구인 련방상설위원회는 련방국가의 통일정부로서 전민족의 단결, 합작, 통일의 념원에 맞게 공정한 원칙에서 정치문제와 조국방위문제, 대외관계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와 민족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에 있는 사회제도와 행정 조직들, 각당, 각파, 각계 각층의 의사를 존중히 여기며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에 자기 의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북과 남의 지역 정부들은 련방정부의 지도 밑에 전민족의 근본 리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며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 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련방국가의 국호는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 나라 통일국가의 이름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과 남의 공통한 정치리념을 반영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어떠한 정치군사적 동맹이나 쁠럭에도 가담하지 않는 중립국가로 되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가지고 있는 북과 남의 두 지역을 하나의 련방국가로 통일하는 조건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중립국가로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며 또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우리 나라의 전령토와 전민족을 포괄하는 통일국가로서 전체 조선인민의 근본 리익과 요구에 맞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다음과 같은 시정방침을 내세우고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합니다.

첫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국가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며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주성은 독립국가의 기본표징이며 나라와 민족의 생명입니다. 국가활동에서 확고한 자주성을 가지고 자주권을 행사하여야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킬수 있으며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나라의 부강발전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그 어떤 나라의 위성국으로도 되지 않으며 그 어떤 외세에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쁠럭불가담국가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나라의 전지역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민주주의를 실시하며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각이한 사상과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다같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통한 정치리념이며 각계 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신성한 권리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독재정치와 정보정치를 반대하고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옹호, 보장하는 민주주의적인 사회정치제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정당, 사회단체의 조직과 활동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며 북과 남에 살고 있는 인민들이 나라의 모든 지역을 자유로이 오고가며 임의의 지역에서 정치, 경제, 문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북과 남의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나라 안의 두 지역과 두 제도, 여러 당파와 계급, 계층의 리익을 다같이 보장하는 공정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가 실시하는 모든 정책은 민족 대단결의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민족의 단결과 합작을 강화하여 나라의 통일적인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통일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북과 남의 어떠한 단체나 개별적 인사에 대하여서도 과거를 묻지 않고 단결하여 나가며 어떤 형태의 정치적 보복이나 박해도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 사이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를 실시하며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앞으로 계속 개발리용할 수 있는 풍부한 자연부원이 있으며 지난 기간 마련하여 놓은 경제토대가 있습니다. 나라가 통일된 조건에서 북과 남이 서로 협조하고 합작하여 자연부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미 마련하여 놓은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우리 나라의 민족경제는 매우 빨리 발전할 수 있으며 우리 인민들은 모두 다 남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북과 남 사이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는 북과 남의 서로 다른 경제제도와 기업체들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인정하는 기초우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북과 남에 있는 국가소유와 협동단체소유, 사적소유와 개인소유를 다같이 인정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자본가들의 소유와 기업활동에 대해서도 독점과 매판 행위를 추구하지 않고 민족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에서는 그것을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여러 계급과 계층의 리익에 맞게 모든 생산단위와 기업체들의 경제활동을 잘 조절하면서 북과 남이 지하자원과 바다자원을 비롯한 자연부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리용하며 호상협력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무역과 통상을 널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의 당국 또는 기업체들 사이에 공동회사, 공동시장 같은 것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 사이의 광범한 합작과 교류를 통하여 북과 남의 경제를 서로 련결되고 유기적으로 결합된 자립적인 민족경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과학, 문화, 교육 분야에서 북과 남 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며 나라의 과학기술과 민족문화예술, 민족교육을 통일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 인민은 유구하고 찬란한 민족문화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기롭고 재능있는 우리 민족은 오랜 옛날부터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훌륭히 발전시켜 왔습니다. 해방 후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서는 유능한 과학자, 기술자들과 재능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자라났습니다. 북과 남 사이에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여 북과 남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문화예술인들이 힘과 지혜를 합친다면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과 민족문화예술은 더욱 찬란히 개화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연구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과학기술분야의 성과와 경험을 널리 교환하도록 하여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연구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과학기술분야의 성과와 경험을 널리 교환하도록 하여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련방 국가는 북과 남의 예술인들과 체육인들 사이의 교류와 합작을 적극 장려하며 북과 남의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민족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호관리하며 고유한 우리 말과 글을 연구 발전시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민족문화예술을 더욱 찬란히 꽃피우고 단일 민족으로서의 우리 민족의 고유성을 계속 살려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련방정부는 인민적인 교육 제도를 발전시키고 교육사업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민족기술인재를 많이 양성하며 전체 인민의 문화지식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일 계속)

3권 제8장

반일의 기치높이

1. 이광
2. 오의성과의 담판
3. 동녕현성 전투
4.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를 논함
5. 마촌작전
6. 밀림속의 병기창
7. 영생의 꽃

5. 마촌작전(5)

적들은 만신창이 되어 허덕이면서도 검질기게 늘어붙어 장기전을 기도하였다. 인원도 무기도 식량도 공급받을 데가 없는 우리를 장기전의 함정에 빠뜨려 얼어 죽고 굶어 죽게 하려는 것이였다.

전국의 결정적인 전환만이 유격대와 유격구 인민들을 구원할 수 있었다. 유격구방위전과 함께 적들의 종심에서 강력한 교란작전을 벌이는 것만이 유격구와 인민들을 보위하는 유일한 출로였다.

원래 나는 왕청에 온 초기부터 유격구 사수에만 매달리는 방어일변도의 경향을 반대하였다. 다시 말하여 적들의 역량이 분산되였을 때에는 우리가 힘을 합쳐 적들을 습격 소멸하고 적들이 역량을 집결하여 우리한테로 쳐들어올 때에는 반대로 우리가 역량을 분산하여 도처에서 적의 후방을 교란하자는 것이였다. 이러한 전법을 피실격허의 전법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활동해야 근거지도 고수하고 부대의 역량도 보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동만당과 현당에 앉아 있던 대부분의 간부들은 적들이 집결해 쳐들어올 때에는 무턱대고 우리가 집결해서 적을 방어해야 유격구도 지켜내고 인민들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두 가지 이론이 전술상 문제로 대치되어 나중에는 어느 주장이 진실로 맑스주의적인 것이고 어느 것이 비맑스주의적인 것인가 하는 어마어마한 논란까지 빚어냈다.

그들이 우리의 이론을 비맑스주의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나아가서는 현실도피적이고 투항주의적인 것으로 평가하므로 우리도 그때 날을 세워가지고 적구교란론의 정당성을 완강하게 고집하였다.

우리가 아무리 역량을 집결한다고 하여도 적을 감당할 만한 힘은 못된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인민들을 사방에다 피난시키고 유격대도 일부만 남겨 여기저기서 뚱땅거리게 하자. 그러는 사이에 유격대의 나머지 역량은 분산되어 적 후방을 교란시키자. 가령 총을 멘 대원 10명이 적구로 나간다고 하자. 그 열 사람이 30~40명의 총없는 청년들을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적의 약한 고리들을 자꾸 답새기면 총도 얻고 먹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다홍왜유격대병실

많은 동무들이 당시의 정황을 이성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다 우리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하지만 일부 완고텅이들은 그것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무슨 활동연조를 뽐내면서 ≪젊은 사람들이 투쟁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좋다. 적이 쳐들어올 때 군대가 유격구 밖으로 나간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것은 인민들이야 어떻게 되든 군대만 살고보자는 사상이다≫라고 터무니없는 까박을 붙였다.

유격근거지가 초토화되고 희생자와 전사자들이 속출하자 나는 동장영, 이상묵, 송일을 비롯한 특위와 현의 간부들을 만나 적후교란전을 벌일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이제는 모든 것이 마지막 계선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도 죽고 인민들도 다 죽고 만다. 가면 어데로 가겠는가? 자꾸 쫓겨서 산으로만 들어가는데 수림속으로 그냥 들어가면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쫓기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 인민들을 보호할 수도 없다. 동무들이 유격대와 같이 적을 격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막연한 일이다. 당장 오늘밤이라도 유격대를 서너 패로 나누어 적구에 내보내야 한다. 적구에 나가서 후방 근거지들을 몇 군데만 답새기면 ≪토벌대≫들이 반드시 소왕청에서 퇴각한다.≫

동만의 다른 유격구들도 그 무렵에는 소왕청과 비슷한 고전을 겪고 있었다. 훈춘 사람들은 밀려서 금창과 화소포 쪽으로 갔고 왕우구 사람들은 다홍왜와 삼도만 방면으로, 화룡현 사람들은 처창즈 방면으로 각각 이동하기 시작했다.

사태가 이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도간부들은 용단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하였다.

그래서 나는 적구교란론을 재차 상정시키고 ≪군대는 내가 책임졌으니 내 결심대로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런 다음 유격대원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우리가 방어에만 매달리지 말고 적의 뒤통수도 쳐야 한다. 누가 적구로 가겠는가? 갈 사람은 나를 따라 서라. 많이 요구하지 않는다. 절반만 적구로 나가고 절반은 유격구에 남아 인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적구로 나갈 사람들은 나와 같이 오늘 밤중으로 포위망을 뚫자. 포위망만 뚫으면 살 길이 열린다. 적의 거점들과 지탱점들을 연이어 들부수면 소문이 난다. 소문을 내면서 여기에서도 치고 저기에서도 치면 후방이 녹아날까봐 산골 안에 들어왔던 ≪토벌대≫들이 다 달아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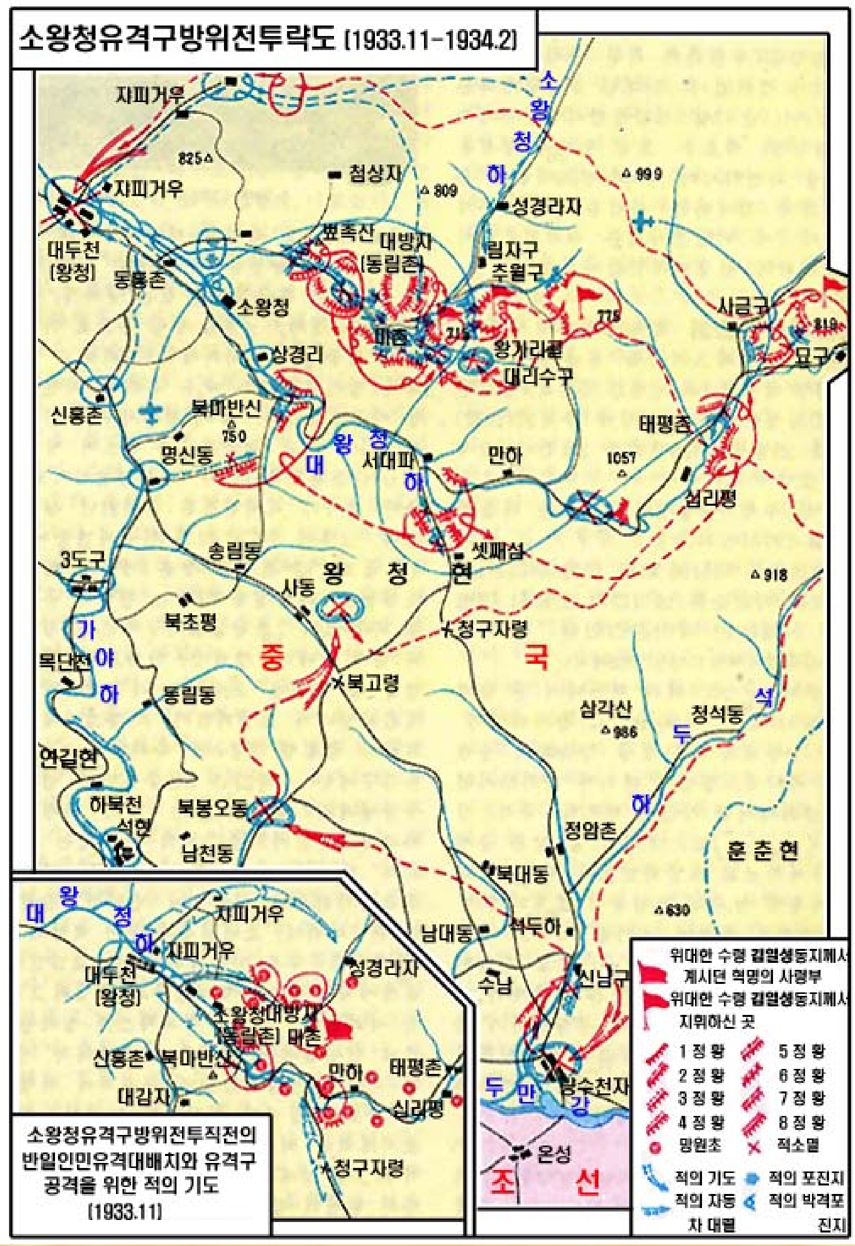
이렇게 되어 유격대는 두 패로 갈라졌다. 한 패는 최춘국의 지휘하에 십리평을 지키고 다른 한 패는 내가 데리고 적구로 나갔다. 1,500여 명에 달하는 근거지 인민들은 공청원들의 인솔하에 라자구에 소개하였다.

소왕청 유격구역

우리는 병중에 있는 동장영을 묘구 방면으로 데리고 가서 간호할 데 대한 임무를 최금숙에게 주고 예비식량까지 다 모아서 그의 배낭속에 넣어주었다. 이것이 그와의 마지막 상면이였다.

나는 그날 저녁으로 유격대의 한개 편대를 데리고 배밀이로 적의 포위망을 뚫고 적 후방으로 깊이 들어갔다. 우리가 예견했던 대로 적 후방은 오히려 텅 비어 있었다. 우리가 도시 주변의 첫 부락에 들렸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은 설 준비를 하느라고 한창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그들은 유격근거지에서 일제의 ≪토벌≫에서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만나니 반갑다고 하면서 교즈와 기장떡과 같은 설음식으로 우리를 푸짐히 대접하였다. 그날밤 오백룡 소대의 김생길이라는 대원은 교즈를 140개나 먹고 배가 아파 죽을 뻔하였다.

그 다음날은 너무 피곤하여 보초를 세우고 하루종일 대원들을 재웠다. 몇 달 동안 자지도 먹지도 못하고 혹한 속에서 고생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잠을 늘어지게 자고 나니 눈꼽이 다 나오고 얼굴빛이 환해졌다.



일제의 비행기정찰

우리는 다음날부터 적들을 답새기기 시작했다. 전술은 자그마한 ≪토벌≫거점들에 대한 습격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에 비교적 큰 ≪토벌≫거점들에 대한 공격을 배합하는 것이였다.

맨 처음으로 친 것이 양수천자의 적이였다. 우리의 벼락같은 기습에 위만군과 자위단이 녹아나고 일본영사관 경찰병영이 완전히 점령되였다. 양수천자에서 적후교란의 첫 총성을 울린 우리는 멀리로 사라지는 척하다가 제자리에 돌아앉아 신남구라는 곳에서 이동하는 적 자동차 수송대를 습격 소탕하고 많은 밀가루와 군수물자를 노획하였다.

우리는 신남구에서 멀리 떨어진 북봉오동의 산악지대로 쥐도 새도 모르게 쭉 빠져나가 새 전투를 준비하였다. 1934년 2월 16일 밤 북봉오동의 위만군과 경찰, 자위단원들은 모두 우리 부대에 의해 살상 포로되였다.

북봉오동에서 승리의 개가를 올리고 북고려령을 넘어 사동 방향에 진출한 우리 부대는 동골에 있는 산림경찰대를 공격하여 병영의 적들은 모조리 사살하거나 생포하였다.

적의 동기≪토벌≫을 분쇄하는 데 결정적으로 이바지한 최후의 싸움은 도문-목단강 사이의 철길을 끼고 있는 주요 군사요충지 대두천에서 벌어졌다. 적≪토벌대≫로 변장한 우리는 100여 리의 험산준령을 강행군으로 단숨에 돌파한 다음 3개의 조로 나누어 대두천의 경찰서와 자위단실을 습격하고 군수창고에 불을 질렀다.

이 전투가 있은 다음부터 적들은 유격구를 조이고 있던 포위망을 해제하고 90일 전의 출발지점으로 퇴각하였다. 적들은 ≪암≫을 제거하지 못하였다. 연 석달 동안 유격구의 존립을 위협하던 동기≪토벌≫의 운명은 서산낙일로 끝나고 말았다.

편이상 마촌작전이라고 불렀던 소왕청 근거지방위 전투는 우리의 승리로 끝났다. 그것은 아돌프 히틀러의 취임과 라이프찌히공판, 소미외교관계 수립으로 소란스럽던 세계의 일각에서 소문없이 생겨난 하나의 기적이였다. 소왕청유격구 방위자들의 영웅적 위훈과 고난으로 얼룩진 그들의 행적을 방불하게 그려낼 수 없는 것이 유감스럽다.

우리는 이 승리를 위해 비싼 대가를 치뤘다. 수백 명의 생명이 적의 포화에 목숨을 잃었다. 제일 애석한 것은 최금숙과 동장영을 잃은 것이다.

나를 친동생처럼 그렇게도 사랑해주고 돌봐주던 최금숙, 우리가 적구에서 돌아올 때 개선용사들을 향해 눈물을 뿌리며 달려오던 유격구 인민들 속에는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전령병이 메고 온 나의 배낭 속에는 그에게 선물할 손거울이 있었다. 다른 부녀회원들에게 줄 전리품도 여러 마대가 되였다.

이 겨울에 우리 부녀회원들이 유격구를 지키기 위해 고생인들 얼마나 많이 하고 눈물인들 얼마나 많이 흘렸던가. 그들이 밥인들 얼마나 많이 짓고 풀뿌린들 얼마나 많이 캐였던가. 길 안내를 강요하는 적들을 유격대가 없는

요영구방어전투장

딴 방향으로 유인하여 골탕먹이고 총살당한 혜숙이와 영숙이! 지휘부가 자리잡은 벼랑턱으로 적들이 기어오를 때 놈들이 쳐들어온다고 연방 외쳐대며 원수들을 자기에게로 유인한 최창범의 숙모!…

어찌 계월향이나 논개만 조선의 열녀이고 애국자이겠는가.

하지만 나의 때늦은 정성은 최금숙의 손에까지 닿지 못하였다. 적들은 내가 일생에서 유일하게 누이라고 부르며 따르던 단 한 명밖에 없는 여성, 조국이 해방될 때까지 죽지 말고 싸우자고 말하면 오히려 자기는 불로장생하는데 대장이 몸을 돌보지 않아서 걱정이라고 하던 여성을 이렇게 앗아갔다.

동장영의 죽음도 나에게 있어서는 가슴 아픈 손실이였다. 그는 나를 사랑해주고 나의 사상을 존중해주던 중국동지들 가운데서도 가장 잊지 못할 전우의 한 사람이였다.

나는 그와 함께 중요한 노선 문제를 두고 논쟁도 많이 하였다. 고집이 좀 세 견해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으나 그러한 견해상의 차이가 우리의 우정에까지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는 늘 조선 사람들 가운데서는 내가 제일 믿음이 간다고 하면서 무척 나를 위해주었다.

우리는 대두천전투 후 오영구 방향으로 철수했다가 마촌에 돌아와 소왕청유격구방위전투를 총화하였다. 그 때 마촌에서는 소개지에서 돌아온 인민들이 잿더미 위에 집을 일떠세우고 있었다. 어떤 노인은 유격구에 들어온 후 70번째로 집을 짓는다고 하였다. 살아도 유격구에서 살고 죽어도 유격구에서 죽겠다고 결심한 간도 인민들의 생명력은 이처럼 억척스러운 것이였다.

이런 인민의 지지와 후원이 없었더라면 우리 유격대는 적의 대≪토벌≫을 격파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마촌작전의 승리는 군민일치의 열매이며 인민항쟁의 결실인 것이다. 어려운 때일수록 곤란을 맞받아나가는 우리의 공격정신과 그에 기초한 우리 식의 변화무쌍한 전법은 마촌작전의 승리를 가져온 결정적인 요인으로 되였다.

마촌작전의 전 과정은 혁명정권의 토양위에서 백절불굴하는 우리 민족의 의지와 기개를 안고 거목처럼 우뚝 솟아오른 유격구 정신의 연소과정이였다. 이 정신은 비행기나 대포로써도 정복할 수 없는 견인불발의 힘을 가지고 소왕청의 한치 한치를 피로써 지켜낼 수 있게 하였다.

마촌작전을 통하여 적들은 심대한 군사정치도덕적 참패를 당하였다. 그 대신 우리 혁명군의 군사적 권위는 비할 바 없이 부각되였다. 우리는 이 작전을 통하여 유격전법의 골격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전법들을 무수히 창조하였으며 정차 대부대활동에로 이행할 수 있는 군사조직적, 전술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항일유격대는 적의 어떤 침공도 격파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가지게 되였다.

마촌작전은 소왕청을 고수함으로써 인접 현의 유격구들에 가해진 위기를 해소하는 데도 기여하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 조선혁명을 앙양시키는 데도 큰 공헌을 하였다. 1211고지를 사수한 영웅전사들의 방위정신은 바로 1930년대에 탄생한 유격구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정신을 지니고 제국주의의 포위속에서 우리 식 사회주의를 빛내이며 일로매진하고 있다.

항일전쟁의 포화속에서 탄생하고 연마된 유격구정신을 압도할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이 정신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앞으로도 영원히 필승불패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끝)

소왕청 마촌의 유격대지휘부 귀틀집

예가 진정 ≪성지≫ 아닌가

대양을 건느고
알프스를 넘어 온 외국손님
걸음걸음
백두밀영 둘러 보며
≪성지≫란 의미
새로이 숭엄히 되뇌이네

고대로부터
≪성지≫라 이름하는 곳 많아도
예보다 더 성스러운 곳
그 어데 또 있으랴

봉이마다 바위마다
령장의 기상 나래치고
한줄기 내물에도 한그루 나무에도
령장의 예지 빛발치는 곳

한장의 쪽무이포단에도
한장의 조선지도에도
더없이 숭고한 뜻이 어려
삼가 걸음 못 떼는 곳

그래서 대양이 아무리 넓어도
알프스가 아무리 높아도
학계 정계인사들
천으로 만으로 찾아 오지 않는가

걸음걸음 둘러 볼수록
위인중의 위인이 탄생하신 곳
≪하느님≫을 믿어
인민을 우롱하던 신화의 고장이야
어디 대비나 할수 있을손가

그래서 천만년 먼 세월부터
백두산이 저러히도
만천하 다 거느리고 솟은줄
다시 깨우쳐 주나니

이 세상엔
예루살렘도 있고
이름 모를 신전도 있더라만
인류의 발걸음은 여기로
백두밀영으로 물결쳐 오네

이 세상 천년사
전설을 다 합친다 해도
대비도 못할 백두의 품에
그래서 온 몸을 다 맡기게 되는가

신화로도 전설로도
볼수도 들을수도 없었던
혁명의 성지
예가 진정 성지 아닌가

순종에 무릎 꿇고
숙명에 자기를 맡기던 인민을
나라의 주인 혁명의 주인으로 내세운
위인이 탄생하신
백두밀영이여

백두산을 우러러
정일봉을 우러러
외국손님은
삼가 머리 숙이고
넋을 잃은듯
오래도록 경탄속에 서 있어라

걸그림 ≪베냉-조선협조≫와 ≪안정된 사회생활≫

걸그림 ≪베냉-조선협조≫와 ≪안정된 사회생활≫은 탄생 41돌을 맞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당시 베냉대통령이였던 마티어 께레꾸가 드린 선물이다.

걸그림 ≪베냉-조선협조≫는 두 나라 사이의 친선을 상징하고 ≪안정된 사회생활≫은 새 사회 건설에 떨쳐나선 베냉인민의 투쟁을 반영하고 있다.

마티어 께레꾸는 우리 나라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을 뿐 아니라 조선의 현실을 직접 보면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위대성과 영도의 현명성에 깊이 탄복하고 그이에 대한 깊은 경모심을 간직하게 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오래 전부터 세계혁명의 걸출한 영도자로, 은인으로 끝없이 존경해마지 않았다.

베냉인민은 오랫동안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로 있다가 1960년에 독립을 쟁취하였다. 그러나 나라의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지 못하여 몇 년 사이에 여러 차례의 정변과 정권교체가 있었다.

이런 혼잡 속에서 정권을 잡은 그는 진보와 자주의 길을 선택하고 새로운 정책을 실시하면서 새 사회 건설에로 전체 인민을 불러일으켰다.

군부출신이였던 그는 새 사회 건설의 올바른 방향과 방도를 찾는데서 애로를 느끼고 있었다. 새 사회 건설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위대한 수령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고 싶은 간절한 소원을 안고 그는 1976년 7월에 우리 나라를 방문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머나먼 아프리카땅에서 찾아온 그를 따뜻이 맞아주시고 우리 나라의 여러 분야의 경험을 알기 쉽게 소개하여 주시였으며 기술자, 전문가들을 그 나라에 파견하여 도와줄 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한량없는 배려에 감격을 금치 못해하며 그는 우리 나라 방문기간 현실을 보면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이 기적들이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 창조되였다는 것을 알게 되였으며 그이에 대한 경모의 정이 더욱 깊어졌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새 생활 창조의 길에 들어선 베냉에 여러 분야의 기술대표단들을 파견하여 주시고 끊임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어떻게 감사를 드렸으면 좋을지 몰랐다.

그는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물을 드리군 하였다.

그가 보내온 걸그림 ≪베냉-조선협조≫와 ≪안정된 사회생활≫은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베냉주체사상연구대표단 성원들에게 특별히 과업을 주어 마련한 것이다.

어느날 그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올릴 선물을 어떤 것으로 마련하였으면 좋겠는지 생각하여 볼 데 대한 지시를 한 일군에게 주었다.

그후 그는 그 일군의 의견을 들으며 친애하는 **김정일**각하께 드릴 선물인 것만큼 보다 더 정치적인 뜻이 담겨져야 한다고 하면서 걸그림 같은 것도 좋지 않겠느냐고 하였다.

그 일군은 곧 꼬또누에 있는 이름있는 미술제작소에 찾아가 도안가들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다.

미술제작소 일군들은 진지한 토론을 거듭하며 지혜를 모아 노력한 끝에 두 개의 도안을 합평회에서 통과시켰는데 하나는 ≪베냉-조선협조≫이고 다른 하나는 ≪안정된 사회생활≫이다.

첫 도안에는 국제적 협조를 상징하여 서로 맞잡은 손과 ≪평화, 진보, 정의≫라는 글을 새기고 그 밑에 5대륙인민들을 상징한 부분에는 반원형으로 우리 나라와 베냉 깃발을 그려 넣었다.

두 번째 도안에는 록색바탕에 붉은 색으로 그려진 베냉지도를 배경으로 총, 호미, 치차, 연필, 강냉이이삭, 집, 옷, 책, 적십자마크, 두 개의 둥근 상징화를 떠받들고 탑위에 올라선 남녀 두 사람이 형상되어 있다.

도안이 결정되자 미술제작소의 모든 성원들은 걸그림 창작에 달라붙었다.

여러날 동안 품을 들이고 지혜를 합친 결과 걸그림 ≪베냉-조선협조≫, ≪안정된 사회생활≫은 훌륭한 작품으로 완성되었다.

공동사설관철에서 당조직들의 전투적역할을 높이자

주체91, 1월 9일

우리 당은 우리 조국, 우리 인민, 우리 혁명을 책임지고 승리의 한길로 이끄는 위대한 향도자이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90돐을 맞는 올해에 우리 당은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 일어 나 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킬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였다. 각급 당조직들은 자기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 새해공동사설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당의 의도대로 당사업을 착실하게 잘해 나감으로써 사회주의혁명진지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이 일어 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모든 당조직들이 발동되여 전국을 움직이고 전체 인민을 불러 일으켜 혁명과 건설의 일대 앙양기를 열어 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혁명적령도원칙이며 자랑스러운 기풍이다.

우리 혁명의 중요년대기들마다 준엄한 난국들이 승리적으로 타개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 없는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게 된것은 당의 령도밑에 각급 당조직들의 혁명성과 전투성을 비상히 높인데 있다. 지난해에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의 대풍모가 남김없이 과시되고 강성대국건설에서 력사적전환기가 마련되게 된것은 모든 당조직들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높인것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올해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90돐과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70돐을 맞는 매우 뜻깊은 해이다. 민족최대의 경사가 겹친 올해에 우리 당조직들앞에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의 사상과 업적을 빛내이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에로 적극 불러 일으켜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지금이야말로 각급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할 때이다.

오늘의 시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사상으로 승리하며 전진하는 위대한 선군시대이다. 당조직들은 마땅히 선군시대에 맞는 강한 혁명성과 전투력을 지녀야 한다. 선군정치의 요구대로 인민군대를 기둥으로 하는 우리 혁명의 일심단결을 남김없이 과시하자고 하여도 당조직들의 역할을 그 어느 때보다 높여야 하고 혁명적군인정신으로 경제강국건설에서 일대 앙양기를 열어 나가자고 하여도 당조직들이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비상히 높일 때 뜻깊은 올해를 우리 민족사에 길이 아로새겨질 영광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오늘의 보람찬 투쟁에서 자랑찬 승리를 이룩해 나갈수 있다.

올해 당조직들이 틀어 쥐고나가야 할 목표는 뚜렷하며 과업도 명백하다. 우리 당은 공동사설을 통하여 올해의 총적과업과 부문별 과업, 그 실현방도들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의 의도대로 현실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감으로써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비약의 해, 거창한 전변의 해로 빛내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무엇보다도 뜻 깊은 올해에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 최대의 힘을 넣어야 한다.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의 빛나는 령도의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절세의 위인이시며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은 21세기 강성대국건설의 만년초석이다. 각급 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90돐을 맞으며 어버이수령님의 특출한 위인상과 불멸의 업적을 체득시키는 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을 깊이 간직하고 수령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우리 식 사회주의의 영원한 생명선으로 틀어 쥐고 모든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며 수령님에 대한 숭배심이 대를 이어 가며 끝없이 이어 지도록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어버이수령님의 업적을 옹호하고 계승하는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심화시켜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비범한 예지와 특출한 정치실력, 끝 없는 열정을 지니시고 오랜 기간 우리 혁명을 승리적으로 이끄시여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리신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특히 력사에 류례 없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독창적인 선군혁명령도로 우리 혁명을 이끄시여 조국과 민족의 운명, 사회주의위업을 굳건히 수호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특출한 공적은 세계를 경탄시키고 있다. 당조직들에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여 주체조국의 높은 존엄과 영예가 있고 강성대국의 휘황한 미래가 있다는 신념을 안고 억세게 싸워 나가도록 사상사업을 심화시켜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실록을 깊이 인식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의지, 우리 식의 혁명원칙과 정치방식을 전면적으로 체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뜻 깊은 명절들을 계기로 당과 수령의 위대성과 령도업적에 대한 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온 사회가 앙양된 정치적분위기로 끓어 번지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업적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분야에 다 새겨 져 있다. 각급 당조직들은 올해의 뜻 깊은 명절들을 계기로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교시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드팀없이 관철하도록 대중을 교양하고 적극 이끌어 나가야 한다.

당조직들은 당의 인덕정치를 철저히 구현하여 위대한 령도자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이 남김없이 과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은 일찌기 있어 본적이 없는 새로운 높은 경지에 올라 섰다. 특히 지난 세기 마지막년대의 준엄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통하여 령도자에 대한 인민들의 절절한 그리움과 숭배의 감정은 최절정에 이르렀다. 혁명의 령도자는 언제나 조국과 인민을 생각하고 인민들은 자기 령도자를 절절히 그리며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의 노래를 심장으로 부르는 우리의 혼연일체의 대풍모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수 없는것이다.

우리의 혼연일체는 수령숭배, 수령결사옹위정신의 결정체이다. 당조직들은 우리 혁명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드팀 없는 신념과 깨끗한 량심으로 당과 수령을 끗끗이 받들어 온 우리 인민의 일심단결의 풍모가 남김없이 과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령결사옹위의 구호를 말이나 구호로써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사업과 생활, 순간순간의 실천속에서 구현해 나가도록 적극 이끌어 주어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어떤 폭풍이 휘몰아 쳐도 오직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끝까지 뜻도 마음도 운명도 같이 해나가는 순결의 인간, 순결의 동지로 되도록 적극 이끌어 주어야 한다.

올해에 각급 당조직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일성**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살며 싸워 나가도록 하는데 당사상사업의 모든 화력을 집중시키는것이다.

김일성민족제일주의는 우리 인민의 삶과 투쟁의 기치이며 강성대국건설의 영원한 구호이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일성**민족의 높은 긍지와 자존심을 지니고 살며 투쟁하도록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수령이 위대하고 사상이 위대하며 군대가 불패이고 제도가 우월하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원리적으로 깊이 있게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적극 짜고 들어야 한다.

모든 사상교양사업을 **4**대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데로 지향시켜 나가야 한다. 당조직들은 민족제일주의교양을 사상교양사업의 모든 내용과 형식, 계기를 리용하여 꾸준히 진행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강한 민족자주정신과 배짱을 가지고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제도, 우리의 위업을 견결히 옹호하고 빛내여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누구나 **김일성**민족이 제일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한몸을 바치는 뜨거운 애국충정과 헌신성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민족이 결코 남만 못지 않으며 능히 다른 민족보다 앞서 나갈수 있다는 자존심을 가지고 분발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애국자, 진정한 민족주의자가 되게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총 돌격전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 있게 불러일으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생산적앙양이 일어 나게 하여야 한다.

올해에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다. 각급 당조직들은 당이 제시한 ≪경제강국건설의 자랑찬 성과로 민족최대의 명절을 빛내이자!≫라는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패기있게 벌려야 한다.

지금 새해공동사설을 받들고 떨쳐 나선 인민들의 열의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다. 당조직들은 대중의 혁명적열의가 계속 고조되도록 모든 선전선동력량을 집중하여 정치선전, 경제선동을 진공적으로 벌려야 한다. 1950년대에 준엄한 전쟁의 포화도 뚫고 불 타는 강도 건느던 그 불굴의 정신, 재더미를 헤치고 천리마대고조를 일으키던 그 혁명적기백으로 온 나라가 부글부글 끓게 하여야 한다. 특히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새 세기 비약과 혁신의 봉화인 라남의 봉화를 높이 들고 대담한 공격정신과 불굴의 투지, 혁명적기백으로 올해에 자기 단위앞에 맡겨 진 전투적과업을 무조건 수행하도록 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려 온 나라에 창조와 변혁의 불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치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새해공동사설에 기초하여 올해에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수행해야 할 목표를 혁신적으로 내세우고 그것이 철저히 실현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빈틈없이 하여야 한다. 경제사업에서 당, 행정, 기술일군들의 3위1체를 확고히 보장하여 커다란 생산적앙양이 일어 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경제지도일군들이 강한 장악력, 통제력, 집행력을 지니고 당의 혁명적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해 나가도록 잘 도와 주어야 한다.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의 당조직들은 자기 부문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제적앙양의 돌파구를 열어 나가기 위한 투쟁에 적극 앞장 서도록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힘차게 울리며 경공업부문과 농업부문의 당조직들은 자기 부문에 제시된 당의 방침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관철되도록 대중을 이끌고 나가야 한다. 과학연구부문의 당조직들은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이 뜻 깊은 올해에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적극 풀어 나가며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나라의 첨단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특출한 기여를 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이 올해의 총 진군에서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사업을 위대한 **김정일**동지식으로 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수십년간 우리 당과 혁명을 진두에서 이끌어 오시면서 가장 위력한 혁명령도방법을 창조하시였다. 끊임 없는 현지지도로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속에 계시며 들끓는 현실속에서 모든 사업을 대담하게 전개하고 통이 큰 변혁을 이룩해 나가시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령도방법이다.

모든 당조직들은 언제나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 가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중요과업들을 대중속에 실감 있게 해설선전하고 그 관철을 위한 총 돌격전에로 힘 있게 불러일으키며 당의 방침이 훌륭히 관철되도록 적극 도와 주고 요구성을 높여야 한다. 모든 일을 통이 크게 작전하고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우리 당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존함으로 영광 떨치고 **김정일**정치로 승리하는 가장 존엄 있는 당이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당조직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에 맞게 당사업을 패기있게, 혁명적으로 해나감으로써 뜻 깊은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자랑찬 성과로 빛내여야 할것이다.

과학기술을 틀어 쥐고 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자

주체91, 1월 23일

사상, 총대와 함께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강성대국을 건설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최근에도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적극 다그칠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은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튼튼히 틀어 쥐고 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돌파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긴절한 문제는 현대적과학기술에 튼튼히 의거한 경제강국, 과학기술대국을 일떠세우는것이다.

과학기술대국건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내세우고 계시는 일관한 방침이고 전략적인 투쟁목표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 **≪지금은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며 과학과 기술을 모르고서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습니다.≫**

과학기술은 국력의 기초이며 민족적번영의 원동력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대에 우리 조국을 세계적인 과학기술대국으로 전변시키실 구상을 펼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 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건설되는 강성대국은 현대적과학기술에 기초하고 그것으로 위력 떨치는 과학기술강국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과학기술전략은 한없이 웅대하다. 위대한 장군님의 과학기술전략은 짧은 기간에 우리 경제와 과학기술을 세계최첨단수준에 이르게 하려는 대담한 전략이며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로 과학기술강국을 건설하려는 자력갱생의 전략이며 나라의 모든 힘을 총 동원하여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려는 적극적인 전략이다. 세계과학기술발전추세와 우리의 현실적조건, 강성대국건설의 절박한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당의 과학기술전략은 무궁무진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과학기술대국건설구호에는 **김일성**조선의 오늘뿐아니라 미래도 책임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의 정신이 맥박치고 있고 먼 앞날을 내다보며 과학기술발전을 선행시키시는 선견지명의 예지가 깃들어 있다. 과학을 국력의 기초로, 강성대국건설의 기둥으로 내세우시고 정력적으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원대한 목표와 현명한 령도는 지금 우리 인민을 무한히 격동시키고 있으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더 빨리 내달릴 불굴의 의지를 백배로 북 돋아 주고 있다.

우리의 사상진지는 확고하고 총대도 든든하다. 과학기술을 틀어 쥐고 나라의 경제를 현대과학기술의 토대우에 올려 세우기만 하면 우리는 능히 가까운 기간에 21세기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령마루에 올라설수 있다.

정보기술, 콤퓨터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펼쳐 진 21세기 정보산업의 시대는 치렬한 과학기술경쟁의 시대이다.

력사가 오래고 자원이 풍부한 나라도 과학기술적진보가 따라 서지 못하면 번영을 이룩할수 없고 다른 나라의 기술경제예속국으로 될수 있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일시적인 기술적우위를 리용하여 인류공동의 정신적재부인 과학기술을 독점하려고 비렬하게 책동하고 있다. 특히 자주적대가 강하고 혁명적립장이 투철한 나라와 민족에 대한 경제과학기술봉쇄를 악랄하게 감행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과학기술봉쇄책동을 짓부시고 하루빨리 첨단과학기술의 목표를 점령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전도를 좌우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관점문제는 혁명에 대한 립장문제, 강성대국건설위업에 대한 태도문제이다.

우리의 과학기술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모진 시련속에서도 침체와 답보를 모르고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과학중시, 과학선행정치의 위대성은 ≪고난의 행군≫시기에 더욱 뚜렷이 과시되였다.

최근년간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우리 혁명의 가장 엄혹한 시련의 시기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제국주의자들과 치렬한 대결전을 벌려야 했던 준엄한 조건에서도 정보기술을 비롯한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커다란 힘을 넣어 오시였다. 남들 같으면 당면한 생존문제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시련의 시기에 앞을 내다보시며 콤퓨터수재양성기지들과 첨단과학연구기지들을 꾸려 주시고 정보과학발전을 위한 대담한 조치들을 취해 주시며 비록 공장들에서 생산은 멎어도 과학연구사업은 중단없이 내밀도록 하신분이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과학원과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과학, 교육부문에 대한 력사적인 현지지도는 온 나라에 과학중시사상이 차넘치게 한 중대한 력사적계기로 되였다.

과학자들이 거둔 성과를 두고 누구보다 기뻐 하시며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가 있었기에 주체과학은 모진 시련속에서도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의 성과적발사와 같은 놀라운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고 오늘은 21세기의 새로운 높은 목표를 향하여 눈 부신 발전을 이룩해 가고 있다.

지금은 건국을 하고 복구건설을 하던 때와 다르다. 주관적욕망만으로는 새것을 창조하며 비약할수도, 혁명위업에 충실할수도 없다. 실력전의 시대인 오늘에는 높은 사업실적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를 받들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 과학기술을 틀어 쥐면 강성대국건설에서 실적을 내는 일군이 되고 과학기술을 외면하면 누구든지 시대의 락오자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를 받들고 이 땅우에 과학기술대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고 강성대국건설의 일대 비약을 이룩하려는 우리 과학자들과 인민들의 각오와 열의는 대단히 높다.

우리 과학자들은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풀죽을 먹어도 조국을 위해 연구사업만 하면 그만이라는 투철한 신념을 지니고 나라의 과학발전에 헌신분투한 애국자, 보배들이다. 자기의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쳐 위대한 장군님의 과학기술대국건설구상을 받들려는 깨끗한 량심과 고결한 인생관을 지닌 더없이 순박하고 슬기로운 인재들을 수많이 가지고 있는것은 우리 조국의 자랑이며 과학기술대국, 강성대국건설의 튼튼한 밑천이다.

우리는 류례없이 엄혹한 시련속에서 새 세기에 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과 로고를 언제나 잊지 말고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김정일**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 나서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과학중시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철저히 옹호 관철해 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과학중시사상은 21세기 강성대국건설의 지름길을 밝혀 주고 있는 혁명과 건설의 힘 있는 무기이다. 모든 일군들과 과학자들,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김일성**조선은 응당 정치와 군사뿐아니라 과학기술면에서도 대국이 되여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신념을 심장깊이 간직하여야 한다.

시국이 좋아도 중시하고 어려워도 더욱 튼튼히 의거해야 하는것이 과학기술의 위력이다. 우리는 과학중시, 과학선행을 가장 중요한 정책적문제의 하나로 내세우고 과학발전에 전 국가적관심을 돌리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를 심장으로 받아들이고 그 실현을 위해 한결같이 떨쳐 나서야 한다.

과학기술발전이자 강성대국건설이고 민족의 번영이며 사회주의수호라는 관점, 자력갱생도 오늘날에는 현대적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을 하여야 한다는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우리는 과학기술의 위력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비상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과학기술대국건설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에 강성대국건설투쟁의 성패가 크게 달려 있다. 오늘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에 대한 당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는 대단히 크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자기들을 키워 주고 내세워 준 당과 조국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겠다는 높은 사상적각오, 불 타는 애국적열정으로 심장을 끓여야 한다.

오늘 과학기술발전은 세계적범위에서의 치렬한 경쟁속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우리의 모든 과학자들은 계응상, 리승기와 같은 세계적인 과학자, 세계패권을 쥔 발명가가 될 원대한 포부와 리상을 지녀야 한다. 자기 지식, 자기 지혜로 과학기술대국을 건설해 나간다는 배짱으로 과학연구의 목표를 높이 세우고 최첨단과학을 대담하게 탐구하여야 한다. 한번 시작한 연구사업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끝장을 보는 혁명적과학연구기풍을 세워야 한다.

나라의 정보과학기술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에 올려 세워야 한다. 사회발전,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보기술발전을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나가야 한다. 정보기술발전계획을 똑똑히 세우고 정보기술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대렬을 늘이며 그들의 수준을 빨리 높여야 한다. 정보기술발전의 세계적추세를 환히 알고 나라의 정보기술을 철저히 우리 식대로 발전시켜 주체성이 강하고 안전성이 담보된 정보산업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현대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은 기초과학의 성과에 토대하고 있으며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자립성은 기초과학분야에서부터 시작된다. 첨단과학과 함께 수학, 화학, 물리학, 생물학을 비롯한 기초과학발전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인민경제전반을 현대적기술로 개건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훌륭한 연구성과를 더 많이, 더 빨리 내놓아야 한다. 올해공동사설에서 제시된대로 채취공업과 전력, 석탄, 금속공업, 철도운수에서 경제적앙양의 돌파구를 열수 있는 과학기술문제, 농업생산을 늘이고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력량을 집중하고 실적을 올려야 한다.

우리 당은 20대, 30대 과학자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젊은 과학자, 기술자들은 진취적인 열정과 청춘의 기백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나라의 정보기술과 첨단과학분야의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독창적으로 내놓으신 종자론은 실천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창조와 변혁의 위력한 무기이다.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은 기발한 착상, 혁신적인 안목으로 해당 과학기술문제해결에서 제일 걸린 문제, 가장 큰 실리를 보장할수 있는 문제를 종자로 선택하고 하나하나 풀어 나가야 한다. 실력이 없으면 ≪낚시군≫이 되고 실력이 있는 사람만이 성공할수 있다는것을 언제나 명심하고 최신과학기술추세에 민감하고 풍부한 지식을 소유하기 위하여 높은 열정을 바쳐야 한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전당적, 전국가적, 전사회적관심을 돌려야 한다.

전체 인민이 과학기술발전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나라의 인적, 물적자원을 과학발전을 위해 총 동원하는것은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우월성이다. 우리에게는 과학기술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에 끌어 올릴수 있는 위력한 담보가 있다.

우리는 10년, 100년, 먼 앞날을 내다보면서 과학기술에 힘을 넣고 투자도 대담하게 해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기술혁신운동을 힘 있게 벌리며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수행하는 혁명적규률을 세워야 한다. 우리의 실정에 맞게 세계적인 기술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받아 들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교육발전은 과학기술발전의 근본전제이다. 우리는 교육발전에도 응당 계속 큰 관심을 돌리고 힘을 넣어 21세기의 과학발전을 떠메고 나갈 최첨단기술인재들을 대대적으로 키워 내야 한다. 특히 우리 당의 혁명적인 조치에 의하여 현대적으로 꾸려 진 콤퓨터수재양성기지를 비롯한 각급 학교들에서 기초가 튼튼하고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한 실력 있는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 내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

온 사회에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기풍이 꽉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이자 자신의 일이라는 립장을 가지고 과학자, 기술자들을 적극 내세우고 도와 주어야 한다.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사회적기풍을 세우는데서 일군들이 앞장 서야 한다. 일군들은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는 실력가형의 일군이 되여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이룩한 좋은 연구성과들을 귀중히 여기고 제때에 생산에 받아 들여 현실에서 은이 나게 하며 실리를 최대

→

종군위안부진상은 절대로 가리울 수 없다

지금 일본은 수치스러운 종군위안부죄악의 역사를 흐르는 세월속에 희석시켜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버리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군위안부죄악은 희석시킬 수도 묻어버릴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럼 이번엔 ≪종군위안부진상은 절대로 가리울 수 없다≫ 이런 제목으로 윤정원씨 모시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윤정원 : 네, 안녕하세요.

사회자 : 최근 일본반동들이 구일본군이 감행한 종군위안부범죄행위를 완전히 삭제한 고등학교용 역사교과서를 새로 편찬하고 검정에서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우리 국민과 아시아민중들속에서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종군위안부진상은 절대로 가리울 수 없다, 이런 화제로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윤정원 : 다 아는 사실이지만 종군위안부문제는 어제 오늘에 제기된 문제가 결코 아니죠. 종군위안부범죄행위는 과거 한반도를 무력으로 비법강점한 일제가 전대미문의 식민지군사파쇼통치를 실시하면서 근 20만명의 우리 나라 여성들을 비롯한 아시아나라여성들을 강제납치를 해다가 황군의 성노리개로 만들고 그 대부분을 잔인하게 학살한 그런 범죄행위로써 성적으로 보나 규모로 보나 사상 유례없는 만고대죄이고 씻을 수 없는 인권유린행위입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오늘 광범위한 국제사회에서는 과거 일제가 저지른 종군위안부범죄행위를 폭로단죄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울려나오고 있고 일본정부로 하여금 그에 대한 정부적 차원의 사죄는 물론 충분한 배상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거죠.

사회자 : 지금까지 인류역사는 수많은 전쟁시기의 각종 범죄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일제와 같이 강점지역 여성들을 강제납치해 집단적으로 강간한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죠. 과거 일제가 저지른 종군위안부범죄행위는 인간의 도덕윤리는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의 정신육체마저 완전히 말살한 범죄중에 대범죄라고 봅니다.

윤정원 : 우리 여성들을 종군위안부로 만든 구일본의 범죄행위와 같은 그런 범죄행위는 세계 그 어느 나라 역사에도 없었습니다. 일제침략자들은 10대 소녀로부터 유부녀에 이르기까지 우리 여성들을 종군위안부모집대상으로 정하고 짐승사냥하듯 강제로 납치를 해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집단적으로 윤간하고는 그들을 잔인하게 살해했어요. 저들의 요구에 잘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뭇매를 안기고 팔다리를 꺾어놓고 목졸라 죽이고 때려죽이고 눈알과 유방을 도려내고 배를 갈라죽이고 끓는 물속에 잡아넣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귀축같은 만행을 감행을 했고 또 임신한 여성에 대해서는 배를 갈라 태아를 끄집어내서 밟아죽이는 것과 같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살인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자라는 종군위안부는 새로운 여성들로 끊임없이 교체를 했죠. 일본침략자들이 우리 여성들을 어떻게나 많이 잡아갔으면 당시의 출판물들이 조선에서는 젊은 여성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라고까지 서술을 했겠습니까. 이건 우리 민족자체를 말살하려는 용납못할 범죄행위라 아니할 수 없죠.

사회자 : 그렇죠.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미풍양속과 도덕관념을 어지럽힌 종군위안부범죄행위는 인간증오사상으로 길들여진 강도일본만이 자행할 수 있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일본정부는 전후 반세기가 지나고 새 세기에 들어와 두번째해를 맞은 오늘 이 시각까지도 종군위안부범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그것을 역사의 흑막속에 묻어버리기 위해 갖은 권모술수를 다하고 있잖아요.

윤정원 : 사실 종군위안부범죄행위가 구일본정부가 지시하고 군부가 집행한 것이라는게 이미 자료적으로 명백히 밝혀졌고 많은 피해생존자들과 목격자, 가해당사자들의 증언, 특히 이북의 함경북도 청진시 청암구역 방진동에서 발견된 위안소건물과 일본군에 의해 잔인하게 학살된 위안부들의 무덤, 일제가 우리 나라에서 여성들을 군위안부로 끌어다 동남아시아 각 지역의 일본군대에 분산배치했다는 것을 기록한 조선군사령부의 문서, 최근에는 함경북도 청진시 나남구역 풍곡동에서 일본군 나남제19사단이 관리운영했던 위안소건물자리가 또다시 발견된 사실이 이것을 여지없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정부는 전후 반세기가 훨씬 지난 오늘까지도 저들이 저지른 종군위안부범죄행위에 대해 반성조차 하지 않을뿐 아니라 이 범죄행위를 정부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고 시치미를 떼고 있어요. 심지어 일본지배층은 종군위안부범죄행위가 그 어떤 개별적인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라느니 종군위안부로 끌려간 여성들은 강제로가 아니라 자진해서 위안부생활을 했다느니 뭐니 하는 그런 파렴치한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습니다.

사회자 : 그처럼 엄청난 대죄를 저지르고도 사죄의 말 한마디없이 오히려 그들을 모욕하는 이런 반동적인 일본지배층이 행성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인류의 수치라고 봅니다. 지금 교활한 일본당국자들은 비열하게도 이른바 국민기금이라는 것을 계속 고집하면서 종군위안부 생존자들에게 돈 몇푼의 돈을 찔러주는 방법으로 이 범죄행위를 무마해보려고 오그랑수를 쓰고 있잖아요.

윤정원 : 그렇습니다. 종군위안부문제는 일부 피해생존자들에게 몇푼의 돈을 찔러주는 것으로 해결될 그러한 문제가 결코 아니죠. 더욱이 종군위안부로 끌려간 근 20만명의 여성들중 대부분이 일제에 의해서 잔인하게 살해됐거나 그 피해로 이미 세상을 다 떠났거든요. 이런 조건에서 일부 생존자들에게 민간인들로부터 모은 몇푼의 돈을 주는 것으로 사실상 종군위안부문제를 끝내려하는 일본지배층의 책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종군위안부범죄행위는 일본정부가 이 범죄행위에 대해 마땅한 책임을 지고 정부차원의 사죄와 보상을 할 때에만 비로소 해결될 문제거든요. 지금 종군위안부 생존자들은 일제야수들의 만행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와 보상을 받아내기 전에는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들의 피타는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사회자 : 그렇습니다. 오히려 일본당국자들은 종군위안부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교활하게 책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정원 : 일본당국자들이 종군위안부범죄사실을 완전히 삭제하고 침략전쟁을 미화분식한 역사교과서를 편찬한 것과 과거 일제에 의해 강제연행되어 일본군의 성노예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일본입국을 가로막아 나선 사실, 또 있지도 않은 이북의 납치의혹문제를 들고나와 종군위안부범죄를 사죄보상할 것을 요구하는 이북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 사실, 특히 지난해 종군위안부 생존자 15명이 미국의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일본당국의 공식사죄와 정당한 배상을 요구해 집단소송한데 대해 일본당국이 미국정부와 합세해서 이 소송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비열하게 책동한 사실, 이런 것들은 일본의 철면피성과 교활성을 다시 한번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죠. 그래서 이같은 행위는 과거의 종군위안부범죄행위를 역사의 흐름속에 묻어버리고 나아가서 지난날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일본측의 죄의 야망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죠.

사회자 : 일본지배층이 과거에 범한 만행을 감추려고 비열하게 책동하면 할수록 우리 민족은 물론 세인들로부터 더 큰 항의와 규탄을 받게 될거라고 봅니다.

윤정원 :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말에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진행된 일본군 성노예제도를 재판한 여성국제전범법정 최종판결심에서는 종군위안부범죄의 주범인 천황 히로이또와 범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현 일본정부에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할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판결문이 채택이 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98년 제네바에서 진행된 유엔인권위원회 제50차 회의에서는 근 20만명의 우리 나라 여성들을 유인납치해 종군위안부로 끌어간 일제의 죄행을 가장 엄중한 범죄행위로 낙인하고 그에 대한 일본정부의 국가적 배상과 함께 관계자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제58차 유엔인권위에서 종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인정과 책임자처벌,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일본이 지난날 우리 민족에게 감행한 종군위안부범죄행위가 얼마나 국가적, 국제적 범죄로 세인들의 규탄을 받고 있는가 하는걸 잘알 수가 있죠.

사회자 : 그렇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선 오늘까지 과거 범죄행위를 청산하지 않고 아직도 역사의 미해결문제로 남겨놓은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일본은 전쟁범죄옹호죄로 마땅히 국제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이 진정으로 세상사람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떳떳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우리 민족과 세계 진보적 민중들의 일치한 요구대로 하루빨리 과거의 범죄행위를 인정, 사죄하고 보상해야 할겁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사회자 : 일본은 죄악의 역사를 숨기고 반성을 회피하면 할수록 죄가 더욱 무거워진다는 걸 알아야 할겁니다.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17일, 20일

로 보장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단위들, 공장, 기업소들에서 과학기술발전을 생산에 확고히 선행시켜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누구나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머리를 쓰고 아글타글 노력하는것이 오늘의 시대적풍조로 되게 하여야 한다.

올해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전화의 불길속에서 과학원을 창설하신 50돐이 되는 해이다. 현대기술문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이 땅우에 과학기술대국을 일떠세울 웅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랜 세월에 걸쳐 품 들여 키워 주신 나라의 과학기술은 지금 비상히 높은 경지에 올라 서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인 과학중시사상이 있고 실력 있고 재능 있는 과학자의 대부대가 있으며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가 있는 한 우리의 과학기술은 빠른 시일안에 세계적수준에 올라 서게 될것이며 강성대국건설의 추동력으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치게 될것이다.

모두다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더 높이 비약하고 더 빨리 내달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해 나가자.

노동운동탄압은 중지돼야 한다

이 땅에서는 공기업민영화를 반대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이 노동계의 적극적인 연대와 사회 각계의 지지 속에 장기성을 띠고 거세차게 벌어지고 있다.

연초에 민영화의 현안으로 부상한 발전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본으로 하여 철도, 가스, 정보통신, 공무원 등 공공부문노동자들이 벌이는 투쟁은 자기들의 생존과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의로운 투쟁이다.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민영화는 수많은 노동자가 해고될 노동자희생의 반노동자적인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그런 민영화를 견결히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공기업을 민간에 매각한다면서 외국자본에 팔아 넘기는 경우에 기간산업을 외국인의 수중에 내맡기는 것으로서 우리 노동자들은 이런 매국적이고 반노동자적인 행위를 용인할 수 없어 이를 반대하는 투쟁에 너나없이 동참해 나섰다.

발전부문 노동자들의 발전소매각철회와 해고자복직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자 공공부문의 전체 노동자들은 물론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사회각계층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들의 투쟁에 합세하였다.

물론 노동자들은 임금인상, 고용안정, 비정규노동자보호, 근로시간단축 등을 요구하는 투쟁과 노동탄압중지와 구속자석방을 위한 투쟁도 동시에 벌이고 있다.

노동자들의 이러한 요구는 당연히 들어줘야 할 정당한 요구이고 이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 역시 지극히 정당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노동자들의 이러한 요구가 탄압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관계당국은 우선 노동자들의 투쟁을 공권력을 투입하여 가혹하게 탄압하고 잇다.

지난 3월24일 오후 연세대안에서 노조원 2천 500여명이 철야농성을 벌일 때 전경 4백33개중대 3천 500여명을 투입하여 노동자들을 강제해산하고 수백명의 노조원들을 연행, 서울의 각 경찰서에 나누어 감금하고 조사놀음을 벌인 것은 그 단적인 사례이다. 그리고 경찰당국은 파업대상지들에 수많은 전경을 상시적으로 배치해 놓고 탄압에 광분하고 있다.

지금 노동관계부처들 모두가 노동운동탄압에 혈안이 되고 있다.

지난 3월8일 법무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노동부장관과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노동관계장관회의가 그것을 뚜렷히 보여주었다. 바로 이날 노동관계장관회의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을 불법으로 몰아붙이고 노동자들을 검거, 징계할데 관한 문제 등 탄압조치가 모의됐다.

관계당국이 탄압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기업의 매각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은 가진 것 없는 노동자에게 있어서 유일한 권리보장수단이고 또 그 자체가 임금과 노동시간, 해고 등과 직결되는 노동조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당면한 요구이지 그것이 범죄시될 수가 없다.

관계당국은 특히 노동자들의 단합을 가장 두려워 하면서 노동자들이 하나로 단결된 정치적 역량, 조직적으로 결집할 수 없게 하는데 탄압의 예봉을 돌리고 있다. 올들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이 노동계의 연대파업으로 확산되자 탄압의 도수를 한층 높였는가 하면 새로 조직되는 노조를 물리적 힘으로 압살하기 위해 광분했다.

6급이하 공무원들의 단체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총연합이 지난 3월23일부터 24일기간에 서울대에서 전국공무원노조출범식을 가지려 하자 행자부는 공권력을 투입해 행사장을 원천봉쇄했다.

그래서 행사장을 고려대로 옮겨 출범식을 가지자 경찰병력 800여명을긴급출동시켜 그들 전부를 연행하는 폭거를 감행했다.

노동자탄압에서 다음으로 주목되는 점은 탄압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발전노조가 파업을 일으키자 노동부와 회사측은 노동자들에게 현장복귀를 명령하고 복귀하지 않는 노동자는 해고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그러면서 파업지도부와 투쟁에 적극 참여한 노동자들을 해고, 사법처리하며 심지어 투쟁을 포기하고 작업장에 복귀한 노동자의 수자까지 조작발표했는가 하면 군인력투입, 대체인력활용, 신규사원특채 등을 운운하며 노동자들의 투쟁을 와해하려고 심리적 자극을 가하는 고도로 지능화된 탄압도 서슴지 않았다.

특히 파업을 주도한 노조집행부성원들에 대해서는 해고와 검거에만 그치지 않고 이른바 파업으로 인한 ≪피해액 확보≫라는 구실로 법원에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내고 경제물질적 공간을 악용한 탄압도 감행했다.

또한 관계당국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들까지 동원하여 노동자들의 의롭고 정당한 투쟁을 왜곡했으며 수구세력의 노동자탄압을 합리화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 민중들은 ≪조선일보≫배격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것이다.

당국의 기득권유지를 위한 반민중적인 노동운동탄압은 즉각 중지돼야 한다.

우리 노동자들이 강요당하는 부당한 희생과 고통을 없애고 정당한 생존의 권리를 쟁취할 수 있는 길은 투쟁밖에 없으며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단결에 있다. 노동대중은 언제나 이것을 명심하고 모두가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자기를 바쳐야 할 것이다.

손영주 - 구국전선 제478호
주체91, 5월 11일

5.18시민법정, ≪미국은 학살공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미국의 책임이 정면으로 제기되고 있다.

18일 오후 2시 광주 전남도청 대회의실에서는 ≪5.18민중항쟁 22주년 기념행사위원회≫ 주최로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는 5.18 시민법정≫이 진행됐다.

이번 시민법정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정면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평가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법정이 시작되기 전부터 도청 대회의실 1, 2층을 가득 메운 방청객들의 열기는 뜨거웠고, 광주지역 청년회 소속 회원들의 ≪광주여, 무등산이여≫, ≪오월의 노래≫ 등 사전공연에 이어 재판부의 입장으로 시민법정의 역사적인 막이 올랐다.

피고인으로 기소된 제임스 얼 카터 당시 미국 대통령, 윌리엄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 미대사, 존 아담스 위컴 당시 주한 미군사령관, 헤럴드 브라운 당시 미 국방장관, 스탠스필드 터너 당시 미 중앙정보국 국장,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당시 미 대통령 안보담당 특별보좌관, 워렌 크리스토퍼 당시 미 국무부 차관, 리처드 홀부르크 당시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이 출석하지 않은 채 검사의 기소요지 진술은 시작됐다.

미국, 병력이동 묵인했나?

시민법정의 첫 번째 쟁점은 과연 미국이 병력이동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고 지원했는가의 여부다.

시민법정 검사단은 최근 공개되고 있는 당시의 비밀문서를 근거로 ≪미국이 한국의 신군부가 군대를 동원하여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강경하게 진압할 것을 알면서도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전후하여 한미연합사령관의 한국군 해병 1사단, 보병 20, 26, 30, 33사단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에게 이양하는 방법으로 신군부에게 계엄실시에 필요한 병력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검사단은 ≪미국이 당시 미 행정부에 ≪체로키≫라는 암호명의 고위급 정책결정집단을 만들어놓고, 12.12 사태 이후 한국정치와 군사동향을 면밀히 체크하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 신군부의 권력장악과 군대를 동원한 비상계엄을 묵인했다≫고 기소요지 진술을 통해 밝혔다.

실제로, 브루스 커밍스 교수는 영상을 통해 ≪미국방정보국, 미국무부, 백악관은 공수부대의 광주투입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고, 박선원 연세대 통일연구원 겸임교수는 ≪위컴이 80년 5월 7일과 8일 특전사와 해병대가 동원되는 것을 허용했고, 신군부의 어떤 형태의 병력 동원 요청에도 응하겠다고 밝혔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변호를 맡은 장경욱 변호사는 병력이동의 사전인지 여부에 대해서 ≪미국은 광주의 상황이 심각한 것인 줄 알지 못했고, 병력이동에 대해서도 사후통보를 받아서 찬성도 반대도 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며 ≪미국의 관심은 한국의 질서유지와 민주화였고,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변호했다.

장경욱 변호사는 병력지원에 대해서는 ≪광주에 투입된 특전사와 20사단은 한미연합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한국군의 통제를 받았던 부대였다≫며 ≪미국은 예측할 수 없는 이북의 도발에 대비해 한미연합사 통제하에 있던 병력을 움직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광주학살의 협조문제

시민법정의 두 번째 쟁점은 미국이 신군부의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압에 협조했는가의 여부다.

검사단은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미대사가 80년 5월 22일 박동진 외무장관을 만나 사태확산을 막기 위한 한국군의 노력을 미국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고 하여 신군부의 유혈진압작전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검사단은 ≪글라이스틴이 같은날 9시 42분 미국무부에 ≪백악관 안보장관특별대책회의 관련 메모≫라는 전문을 보내 ≪사태가 악화되지 않는 한 적어도 앞으로 이틀간은 군대가 다시 광주로 진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확약을 권위있는 당국자가 우리에게 통보해 왔다≫고 보고하는 등 신군부와 긴밀히 연락하면서, 22시경에는 ≪광주 폭도수는 15만명으로 증가했고, 광주는 완전히 공포의 현장으로 변했다≫고 하여 광주항쟁의 진압 필요성을 미 행정부에 역설했다≫고 주장했다.

검사단은 또한,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한반도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주요관리들이 모여 5월 23일 새벽 백악관 상황실에서 ≪고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 한국당국이 훗날 큰 불안정을 배태할 씨를 뿌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병력을 사용해 광주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과 병력사용을 배제하지 않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고 폭로했다.

이 회의에서는 ≪광주진압작전이 장시간 해결되지 않거나 실패하여 사태가 악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기경보기 2대를 오끼나와에 급파하고 필리핀 수빅만에 정박중인 항공모함 코럴시호를 한국 근해로 출동시키는 결정도 했다≫고 검사단은 비밀문서를 증거로 진술했다.

이러한 사실 외에도 검사단은 ≪미국이 광주소요진압작전을 신군부와 긴밀히 논의하며 병력 투입을 승인하였으며 5월 24일 항쟁지도부의 유혈사태 중단요청도 거절한 채, 5월 27일 새벽 코럴시호가 6척의 구축함을 거느리고 한국해역으로 진입하고 오끼나와에서 급파된 조기경보기 2대가 한국영공을 선회하는 가운데 신군부의 광주 재진입작전이 실행되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사실을 토대로 검사단은 ≪미국이 신군부의 광주학살을 묵인한 정도가 아니라 적극 협조, 공모하였다≫고 미국의 학살책임을 집단살해죄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당시 이희성 국방장관과 유병현 합참의장의 주장을 논거로 ≪미국은 신군부에 끌려다녔을 뿐이며 광주에 투입된 병력에 대한 작전지휘권이 없었기 때문에 군사반란을 제재할 수 없었다≫고 변호했다.

변호인들은 ≪미국은 신군부의 병력이동 사후통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담화문을 발표하고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는 전단을 광주지역에 살포하도록 신군부에 요구했으나 계엄사에서 전단배포를 막았다≫며 ≪미국이 광주학살에 협조했다는 것은 신군부측의 철저한 왜곡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의 광주학살 개입을 이야기하며 일부에서 주장했던 주한미군의 폭동진압훈련 여부에 대해 검찰이 증인으로 요구한 엘렌 바필드 당시 주한미군 상사가 영상으로 ≪당시 우리 기지에서는 비상경계사태에 들어가 폭동진압훈련을 실시했으며 훈련은 강의방식으로 2-3일정도 진행됐다≫고 증언해 사실로 밝혀졌다.

치유되지 않은 학살의 상처

이번 시민법정에서는 특히 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 살아남은 희생자들이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해 방청객들의 눈과 귀를 붙들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오빠를 찾으러 광주시내로 나섰던 홍금숙(여, 당시 고1)씨는 자신이 함께 탔던 시민군 차량이 계엄군의 무차별 사격으로 차량안에 있던 16명의 대학생이 즉사했고, 살아남은 2명은 체포되어 산으로 끌려가 사살되었다고 증언했다.

7살난 아들을 찾으러 집을 나섰던 홍란(여, 당시 주부)씨는 후두골에 계엄군의 총탄을 맞아 ≪아직도 5월이 돌아오면 고통스럽고 고달프다≫고 호소했다.

홍란씨는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병실에 찾아온 군인에게 ≪왜 민간인을 쏘느냐?≫고 질문하자 ≪광주시민이면 보이는 대로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증언해 순간 법정의 분위기가 고조되기도 했다.

휠체어를 타고 세 번째 증인으로 나선 이광영(남, 당시 승려)씨는 ≪공수부대가 광주시민을 대검으로 찌르는 장면을 목격하고 항쟁에 참여하게 됐다≫며 ≪당시 민간인 적십자대 활동을 하면서 계엄군의 총에 맞아 하반신 불구가 돼 아직도 하루 150알의 진통제를 먹으며 고통을 견디고 있다≫고 담담하게 증언했다.

이광영씨는 ≪광주항쟁에 대한 진상규명은 아직 되지 않고 있고, 당시 진압에 참여했던 군인들에 대한 훈장도 회수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민에게 광주항쟁은 아직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희생자들의 증언이 계속되는 동안 방청석에 앉아있던 유가족 중의 일부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광주학살 주범 전두환, 노태우를 처벌하라≫고 외치기도 해 재판장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

시민법정, 미국에 유죄선고

사실심리가 모두 끝난 후 검사단은 논고를 통해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안고 신군부를 통해 광주시민을 폭도로 몰아붙여 학살했다≫며 광주학살의 진짜 책임자는 미국이라고 주장했다.

검사단은 ≪미국은 신군부 집권의 후원자이며 5.18 광주 학살의 사전승인, 협조, 공모의 죄를 면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시민법정 헌장에 근거, 내란죄,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로 기소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내정간섭, 진실은폐,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배상 불이행 등의 책임을 물었다.

이에 변호인들은 최후변론을 통해 ≪검사단의 기소사실은 한미우호관계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며 왜곡이다≫고 주장하고 ≪5.18광주항쟁의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명하며 광주학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신군부에 있다≫고 변호했다.

변호인들은 ≪미국은 당시 상황에서 이북의 남침위협을 막는데 최선의 노력을 했을 뿐≫이라며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이야기하며 변론을 마무리했다.

검사단의 논고와 변호인들의 최후변론이 모두 끝난 후 배심원들의 논의가 이어졌고, 배심원 단장 문정현 신부의 평결발표를 통해 배심원들은 피고인들에게 검사단이 기소한 내란죄,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죄 모두에 유죄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 작성을 위한 잠깐의 휴정을 가졌고, 5분 후 재개된 법정에서 최병모 수석판사는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는 5.18시민법정의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들은 내란죄,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로 기소된 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이다. 피고인들은 유죄로 인정된 사실에 대해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공개적으로 사죄해야 한다.≫

재판부는 미국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과, 79년 10월 26일부터 81년 1월 26일까지의 일체 비밀자료를 공개하고 80년 5월 집단학살에 대해 미국의 책임에 대해 사죄 배상할 것을 권고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이날의 시민법정은 미국이 80년 5월의 광주학살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의 철저한 처벌을 요구한 채 역사적인 법정의 막을 내렸다.

장동렬 기자
2002/05/20 통일뉴스

≪당시 주한미군 폭동진압훈련 받았다≫ 증언 파문

5.18시민법정 ≪카터 등 피고 전원 유죄≫

≪피고인들은 기소된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죄,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에 관하여 모두 유죄이다.≫

5.18 민중항쟁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는 ≪5.18 시민법정≫(재판장 최병모)은 지미 카터 당시 미 대통령 등 피고인 8명 전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시민법정은 또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제적 관례에 따라 공개적으로 사죄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공개적 사죄, 피해보상, 자료공개 및 진상규명, 한국군 작전권 이양,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SOFA협정 개정,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등을 주문했다. 또한 한국정부에 대해서도 당시 미국의 책임을 밝히기 위한 자료 공개 및 진상규명에 착수할 것을 권고했다.

≪5.18 당시 주한미군 시민 상대 폭동진압훈련했다≫

특히 이날 증언 청취에서는 80년 5월 주한미군이 광주사태가 악화될 것에 대비해 폭동진압훈련을 했다는 증언이 나와 충격을 주었다. 이같은 증언은 ≪카터 행정부가 당시 군을 동원하려는 전두환씨의 위협에 상당히 놀랐으며 공수부대를 광주에 파견한다는 사실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미국 정부의 1989년 공식발표와 상반된 것이다.

80년 1월부터 12월까지 경기 포천군 주한미군 험프리 공군기지에서 공병대 상사로 근무했던 앨런 바필드(여.48.미국 볼티모어)씨는 5.18시민법정에 보낸 비디오 테이프와 편지에서 ≪광주항쟁이 시작되자 주한미군 4만여명이 비상경계태세에 들어갔으며 폭동진압훈련도 받았다≫고 밝혔다.

바필드씨는 또 ≪폭동진압훈련은 일반 시민이 대상이었고 당시 내가 근무했던 부대로 들어온 보고에 따르면 광주에서 사망한 시민은 2천5백명이나 됐다≫며 ≪광주의 상황이 악화되면 추가로 미군이 투입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았다≫고 폭로했다.

이로써 22년이 지난 5.18 민중항쟁 당시 미국의 역할과 그 책임에 대한 진실규명은 다시 한번 과제로 떠올랐다.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는 상징적 재판이긴 했지만 ≪시민법정≫ 심리를 통해 미국 정부의 공식입장과 다른 주장이 제기됐고, 미국에 분명한 책임이 있음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광주 피해자, 미 정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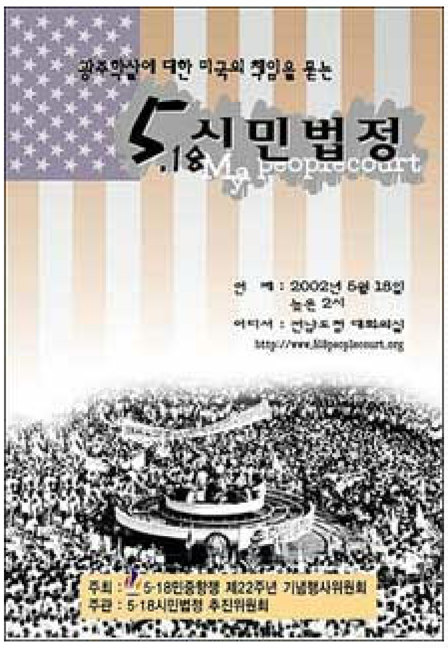
이번 시민법정의 재판장을 맡았던 최병모 변호사는 20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 문제는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국내 책임자들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해서 처벌했던 것을 볼 때 좀더 일찍부터 연구가 되었어야 할 문제≫라면서 ≪5.18시민법정은 5.18 기념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입장을 재정리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시민법정은 국제민주법률가 협회 유엔상주대표인 르녹스 하인즈, 국제행동센터 브라이언 베커 의장 등이 직접 참석하는 등 국제적인 관심도 뜨거웠다≫고 덧붙였다.

≪시민법정≫의 향후 계획에 대해 최 변호사는 ≪아직 논의의 초기 단계지만 모임을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규명위원회≫로 바꿔 지속적인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광주학살과 관련한 미국 비밀전문의 완전한 공개,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 광주피해자들의 미국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홍기혜 기자
2002/05/20 프레시안



≪월드컵 기간에 GM부당성 알리겠다≫

지난 20일, 인천 답동 성당에서 대우자판 노조 기자회견 가져

대우자동차판매노동조합은 20일 인천 답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너널모터스(GM)의 부당 경영간섭과 회사쪽의 부당 노동행위가 161일째 계속되고 있다≫면서 ≪회사쪽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없을 경우 월드컵 기간 동안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과 외신기자를 상대로 GM의 부당성과 한국 노동자의 실태를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지난달 30일 GM의 대우자동차 인수 본계약 체결장에서 헐값매각과 GM의 부당 경영 간섭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강제 연행과 폭력 진압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박민 대우자판노조 정책기획실장은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GM의 스미스 회장이 청와대를 방문해 계약 체결과정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이후 위원장을 포함한 노조 간부 10명에게 긴급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경찰에서는 노조 간부에 대한 체포조까지 구성돼 집행부가 인천 교구청의 도움을 받아 답동 성당에서 천막 농성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병덕 대우자판 노조위원장은 ≪사쪽에서는 일방적인 월 43만원 임금체계를 철회하고 사태해결을 위한 실질적 교섭에 임해야하며 GM은 대우 자판에 대한 부당한 경영 간섭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조합은 사쪽과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사쪽과 정부에서 현재와 같이 노동자와 조합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 계속된다면 금속산업연맹을 비롯해 민주노총 등과 연대, 월드컵 기간 동안 외국인과 외신기자를 상대로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수도권 및 전국의 월드컵 경기장을 포함한 60여 곳의 월드컵 관련 시설에 집회 신고를 했지만 경찰을 집회 불허 통보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철 기자
2002/05/20 오마이뉴스

여성노조원 한강대교 고공시위

시그네틱스 여성 노동자 한 명이 서울 한강대교 철탑 위에서 고공시위를 벌였다. 이날 오후 4시경 단독으로 다리 철탑 위에 올라간 시그네틱스노조 기획실장 이아무개(33) 씨는 사장 면담 등을 요구하였다. 다른 노조원들도 철교 아래에서 ≪시그문제 해결하고 노동탄압 중단하라≫, ≪시그문제 해결없이 월드컵 어림없다≫ 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고 시위를 벌였다. 한국시그네틱스 노조는 회사측과 영풍그룹, 산업은행 등을 상대로 공장 파주 이전과 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300여일째 장기파업을 진행해 왔다.

전형기 노조 상황실장은 ≪최근 노조와 회사쪽과 비공식적 협상을 재개하려고 했지만 회사쪽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협상이 깨졌다≫면서 ≪집행 간부 등이 구속되거나 수배 상태에서 노사간 협상이 쉽지 않지만 사쪽이 노조와의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씨는 오후 6시께 농성을 풀고 자진해서 철교에서 내려 왔다. 그는 철교에서 내려온 직후 현장에서 대기중이던 경찰에 연행되었다.

김시연 기자
2002/05/20 오마이뉴스

전위당의 견해를 중심으로 본 지역통일전선에 대한 견해(2)

이상의 견해를 먼저 정리해 놓으면 전위당의 문헌과 앞의 주요논문들의 견해가 결코 상치되는 견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우리는 전위당의 문헌을 중심으로 앞의 주요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지역통일전선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견해를 확인하게 된다. 이 견해가 동지들의 지역통일전선에 대한 이해를 풍부히 하고 실천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

첫째, 지역통일전선은 민족통일전선의 부분이며 민족민주전선이다. 민족통일전선은 전국적 범위의 통일전선이며 지역통일전선은 일부지역에 한정하는 통일전선으로서 결국 민족민주전선이다. 지역통일전선은 분단된 나라에서 제기되는 통일전선이다. 분단되지 않은 나라에서 전략적 통일전선은 민족통일전선이자 민족민주전선이다. 반면 분단된 나라에서 전략적 통일전선은 전국적 범위의 민족통일전선과 지역적 범위의 민족민주전선으로 구별된다. 지역적 범위의 민족민주전선이 바로 지역통일전선이다. 여기서 지역통일전선이란 현재 건설된 6.15공동선언을 강령으로 하는 전술단위로서의 지역통일전선이 아니라 민족민주전선과 동일한 강령, 자주민주통일을 강령으로 하는 전략단위로서의 지역통일전선이다. 지역통일전선은 어떤 강령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민족민주전선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것이다. 민족민주전선은 6.15공동선언을 강령으로 하는 전술단위의 지역통일전선을 건설하고 사실상 지도하면서 결국 자주민주통일을 강령으로 하는 전략단위의 지역통일전선으로 전화발전시킨다. 남측지역에서 기층민중만이 아니라 중간세력까지 포괄하며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대규모 민족민주전선, 달리 표현하여 자주민주통일을 강령으로 하는 전략단위의 지역통일전선이 건설되어야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민족민주전선이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으로 강화발전하기 위해서 6.15공동선언강령의 지역통일전선을 자주민주통일강령의 지역통일전선으로 강화발전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둘째, 민족민주전선과 진보정당은 모두 지역통일전선의 주체세력이다. 민족민주전선은 6.15공동선언강령의 지역통일전선을 주동적으로 이끌고 있는 주체세력이라면 진보정당은 자주민주통일강령의 지역통일전선을 건설하고 주도할 주체세력이다. 6.15공동선언강령의 지역통일전선은 상설적인 통일전선체와 한시적인 통일전선체가 있다. 현재 민족민주전선은 상설적인 통일전선체를 주동적으로 이끌면서 8.15를 계기로 광폭적인 한시적 통일전선체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자주민주통일의 높은 강령과 10년의 연륜을 가진 민족민주전선은 6.15공동선언이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강령에 아직 공고화되지 못한 지역통일전선을 주동적으로 건설하고 이끌고 있는 주체세력이다. 한편 민족민주전선은 그 포괄부문의 한계를 비롯한 여러 제한성으로 인하여 조만간 대규모 민족민주전선, 자주민주통일강령의 지역통일전선을 건설하기가 곤란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조건에서 통일전선의 대안적 주체세력은 바로 진보정당이다. 노동계급을 비롯한 기층민중을 기반으로 하고 광범한 중간세력의 지지를 받는 자주민주통일강령의 진보정당이야말로 대규모 민족민주전선, 자주민주통일강령의 지역통일전선의 가장 적합한 주체세력이라 할 수 있다. 사실 통일전선의 주체세력은 역사적으로 정당조직으로부터 출발하였다. 통일전선의 주체세력은 원론적으로 노동계급과 그 변혁적 당이다. 노동계급의 조직수준이 낮고 그 변혁적 당이 지하당으로 존재하는 조건에서 합법적인 주체세력으로서의 역할을 그간 민족민주전선이 담당하여 왔다. 민족민주전선의 제한성이 조만간 극복될 수 없는 조건에서 진보정당은 향후 대규모 민족민주전선, 자주민주통일강령의 지역통일전선을 건설하는데서 합법적 주체세력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족민주전선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진보정당을 강화하며 그 역할들을 높이는 것이 지역통일전선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관건적 문제로 된다.

세째, 6.15공동선언은 현단계 지역통일전선의 최적의 강령이다. 6.15공동선언은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민족통일전선과 그 부분인 지역통일전선을 현실화시키였다. 이것이 6.15공동선언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 중 하나이다. 6.15공동선언은 북과 남의 정부간의 상층민족통일전선과 북과 남, 해외의 하층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였다. 결과 남측에서 6.15공동선언강령의 지역통일전선이 형성되며 통일지향세력이 반통일세력을 압도하게 되었다. 민족통일전선과 그 부분인 지역통일전선은 원론적으로 반미자주를 강령으로 하여야 한다. 반미자주가 없이 조국통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전술적으로 그 보다 낮은 강령을 들 수도 있다. 현재 민족통일전선과 그 부분인 지역통일전선은 조국통일의 최저강령인 6.15공동선언을 강령으로 한다. 민족통일전선이 반미자주를 강령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남측정부가 반미강령을 합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통일전선은 민족통일전선의 부분이므로 당연히 반미자주를 강령으로 할 수 없다. 또한 지역통일전선이 반미자주를 강령으로 한다면 그 포괄범위가 민족민주전선으로 한정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지역통일전선은 실천적으로 별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지역통일전선이 반미강령을 가진 반미구국통일전선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과도한 견해이다. 이 견해는 주체의 준비정도와 지역통일전선의 발전단계를 고려한 전술적 조치를 무시하고 있다. 현재 건설된 6.15공동선언강령의 지역통일전선은 6.15공동선언강령의 민족통일전선의 부분으로서 그 지역적 임무를 수행하는 전술단위이다. 한편 지역통일전선은 현단계에서 반미자주의 강령을 전면에 내걸지는 않지만 민족자주라는 강령이 반미자주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반미자주화운동을 간접적으로 추동한다. 민족민주전선은 지역통일전선을 주동적으로 이끌면서 궁극적으로 반미자주의 강령을 내걸 수 있도록 목적의식적인 정치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6.15공동선언이 실현되는 것과 동시에 6.15공동선언강령의 지역통일전선을 자주민주통일강령의 지역통일전선으로 전화발전시켜야 한다. 이처럼 6.15공동선언강령의 지역통일전선을 당장 자주민주통일강령의 지역통일전선으로 전화발전시켜야 한다는 것도 편향이지만 반대로 6.15공동선언강령의 지역통일전선을 궁극적으로 자주민주통일강령의 지역통일전선으로 전화발전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홀시하는 것도 편향이다.

네째, 지역통일전선은 전술적 공동전선이 아니라 전략적 통일전선이다. 6.15공동선언 이후 4차원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첫째 관계는 북과 남, 해외의 조국통일세력간의 하층민족통일전선으로서 이는 전략적 통일전선이다. 둘째 관계는 북과 남의 정부간의 상층민족통일전선으로서 이는 전술적 공동전선이다. 세째 관계는 남측민족민주세력과 남측정부간의 관계로서 이는 전술적 공조관계이다. 네째 관계는 남측민족민주세력과 남측평화공존세력간의 관계로서 이는 전략적 통일전선이다. 여기서 네째 관계가 바로 6.15공동선강령의 지역통일전선이다. 이는 첫째 관계인 북과 남, 해외의 조국통일세력간의 민족통일전선의 부분이다. 전략적 통일전선이라는 개념은 현재 조국통일의 최저강령인 6.15공동선언강령의 통일전선이지만 최고강령인 조국통일3대헌장의 통일전선으로, 전략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통일전선이라는 뜻이다. 앞에서 자주민주통일강령의 지역통일전선을 전략단위라고 한 것은 6.15공동선언강령의 지역통일전선이 전술단위라는 것과 대비한 개념이며 지금 6.15공동선언강령의 지역통일전선을 전략적 통일전선이라고 한 것은 북남정부간의 전술적 공동전선과 대비한 개념이다. 6.15공동선언은 기본적으로 민족대단결의 강령이다. 하지만 그 민족자주원칙이 반미자주를 내포하고 있으며 낮은 단계 연방제에 건설된 민족통일기구는 두 지역정부의 상위의 조국통일기구로서 장차 통일연방정부로 전화발전할 것이다. 전술적 공동전선이라는 개념은 북과 남의 정부간의 통일전선이 깨질 수 있다는 전제에서 새로 도입한 개념이다. 이는 전략적 통일전선과 전술적 공조관계라는 개념과 상대적으로 구별짓기 위한 개념이다. 전략적 통일전선과 전술적 공동전선, 전술적 공조관계는 그 전략적 성격과 공고성의 여부에 따라 명백히 구별된다. 물론 남북정부간의 ≪상층민족통일전선≫이라는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공동전선이라는 개념은 넓은 의미의 통일전선의 개념에 포섭되는 개념이다. 다만 남측정부의 6.15공동선언파기여부에 따라 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북과 남, 해외의 조국통일세력간의 하층민족통일전선과 뚜렷이 구별된다. 한편 북과 남, 해외의 조국통일세력간의 하층민족통일전선과 그 부분인 남측민족민주세력과 남측평화공존세력과의 지역통일전선도 북과 남의 정부간의 상층민족통일전선이 깨어지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 경우에 지난해 금강산통일대토론회나 8.15민족통일대축전과 같은 행사가 쉽게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북과 남, 해외의 하층민족통일전선이나 남측에서의 지역통일전선의 성격이 전략적 통일전선에서 전술적 공동전선으로 바뀔 수 없음은 당연하다. 전략적 통일전선을 강화하는 것은 조국통일의 최저강령만이 아니라 최고강령을 실현하는데서 관건적 문제로 된다. 그리고 조국통일의 최저강령이 실현되면 전략적 통일전선은 결정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민족민주세력이 전략적 통일전선을 강화하는 사업과 조국통일의 최저강령을 실현하는 사업에 전심전력하여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섯째, 민족통일전선의 지역적 임무는 지역통일전선운동이다. 민족통일전선의 지역적 임무와 지역변혁의 임무는 같은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양자가 같은 경우는 민족통일전선의 지역적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통일전선의 강령이 자주민주통일인 경우이며 다른 경우는 지금처럼 6.15공동선언인 경우이다. 지금 민족통일전선의 지역적 임무는 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 지역통일전선운동으로서 자주민주통일을 실현하는 지역변혁의 임무와 구별된다. 민족통일전선의 지역적 임무는 지역통일전선이 수행하는 임무를 말하며 한마디로 지역통일전선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통일전선운동이란 지역통일전선을 확대강화하는 조직사업과 반통일세력을 제압하며 국가보안법과 국가정보원을 철폐, 해체하는 투쟁사업을 말한다. 지역통일전선운동의 주

체를 강화하는 조직사업은 그 역할을 높이는 투쟁사업의 전제이므로 전자에 후자를 내포시켜 지역통일전선운동을 간단히 지역통일전선의 확대강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반통일세력은 국가보안법과 국가정보원을 수단으로 하는 주체이므로 반통일세력을 제압하는 사업에 국가보안법과 국가정보원의 철폐, 해체를 내포시킬 수도 있다. 반대로 국가보안법과 국가정보원은 반통일세력의 존립근거이자 최대무기이므로 이들의 철폐, 해체 투쟁에 반통일세력제압투쟁을 내포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최대무기가 국가보안법이므로 국가보안법 철폐에 국가정보원 해체를 내포시킬 수도 있다. 결국 민족통일전선의 지역적 임무란 지역통일전선의 확대강화일 수도 있고 반통일세력의 제압일 수도 있고 국가보안법 철폐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 개념에 다른 개념을 내포시켜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한편 미제국주의는 반통일세력과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을 통하여 식민정책, 분단정책을 관철시키고 있다. 따라서 반통일세력을 제압하고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을 철폐시키는 투쟁은 곧 미제국주의의 손발을 끊어내는 중요한 반미투쟁으로 된다. 이 사업을 홀시하면 반통일세력과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은 활개를 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통일애국세력은 위축되고 반미투쟁 자체도 곤란을 겪게 된다. 지난 해 상반기 전술적 실패란 바로 민족통일전선의 지역적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지역통일전선이 확대강화되지 못하고 반통일세력이 되살아나 결국 민족민주세력이 정세의 주도권을 잃었다는 의미이다. 이는 민족통일전선의 지역적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통일전선과 그 주체세력으로서의 민족민주전선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한 것과 관련 있는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지역통일전선강화의 관건적 문제는 하나의 혁명영도체계실현이다. 지역통일전선은 민족통일전선의 부분이며 민족민주전선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지역통일전선이 강화되면 민족통일전선과 민족민주전선도 강화되며 반대로 민족통일전선과 민족민주전선이 강화되면 지역통일전선도 강화된다. 민족통일전선과 민족민주전선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북과 남의 혁명역량 간의 조직적 결합이 실현되어야 한다. 북과 남의 혁명역량 간의 조직적 결합이란 북의 정치조직과 남의 민족민주세력의 지도핵심역량이 하나의 혁명영도체계로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항일시기 해외의 무장투쟁역량과 국내의 대중투쟁역량의 조직적 결합은 항일대전을 승리를 이끌기 위한 전략적 방침이었다. 여기서 해외의 무장투쟁역량과 국내의 대중투쟁역량의 조직적 결합은 해외의 조선인민군당위원회와 국내의 대중투쟁역량의 지도핵심역량이 하나의 혁명영도체계로 결합하며 실현되었다. 해외의 무장투쟁역량과 국내의 대중투쟁역량간의 통일적 영도체계를 수립하면서 반일민족해방투쟁역량은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승리를 앞당기게 되었다. 결국 북남혁명역량간의 통일적 영도체계수립은 민족통일전선과 민족민주전선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관건적 문제로 된다. 따라서 북남혁명역량간의 통일적 영도체계수립은 지역통일전선의 강화발전에서도 관건적 문제로 된다. 조미공동코뮈니케와 6.15공동선언 이후 전국적 범위에서 전개되고 있는 민족통일전선운동은 오늘 하나의 혁명영도체계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북과 남을 절대적으로 분리하고 남 중심으로 사고하는 반국적, 지역적 사고를 철저히 극복하고 전국적 관점을 확립할 때에 비로소 하나의 혁명영도체계는 수립될 것이다. 하나의 혁명영도체계를 수립할 때 민족통일전선운동과 민족민주전선운동, 지역통일전선운동은 비약할 것이다.

통일여명 편집위원 강인규(편집국 보도 40호)

광 고

음악예술론

1991년 7월 17일

1. 주체음악

1) 주체시대는 새형의 음악을 요구한다
2) 주체는 우리 음악의 생명이다
3) 혁명에 필요한 것이 명곡이다
4) 음악을 대중화하여야 한다

2. 작곡

1) 음악은 선율의 예술이다
2) 절가는 인민음악의 기본형식이다
3) 악기편성에서 기본은 민족악기와 서양악기를 배합하는 것이다
4) 편곡은 창작이다
5) 다양한 종류와 형식의 음악을 창작하여야 한다

3. 연주

1) 연주는 창조의 예술이다
2) 연주에서 민족적 정서와 현대적 미감을 옳게 구현하여야 한다
3) 연주에서 개성적 특성을 살려야 한다
4) 연주는 정열적으로 하여야 한다
5) 연주가는 창조의 능수가 되어야 한다
6) 지휘자는 악단의 사령관이다

4. 음악후비육성

1) 후비가 튼튼해야 음악예술이 발전한다
2) 특출한 재능을 가진 음악예술인후비는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키워야 한다